

WITH KR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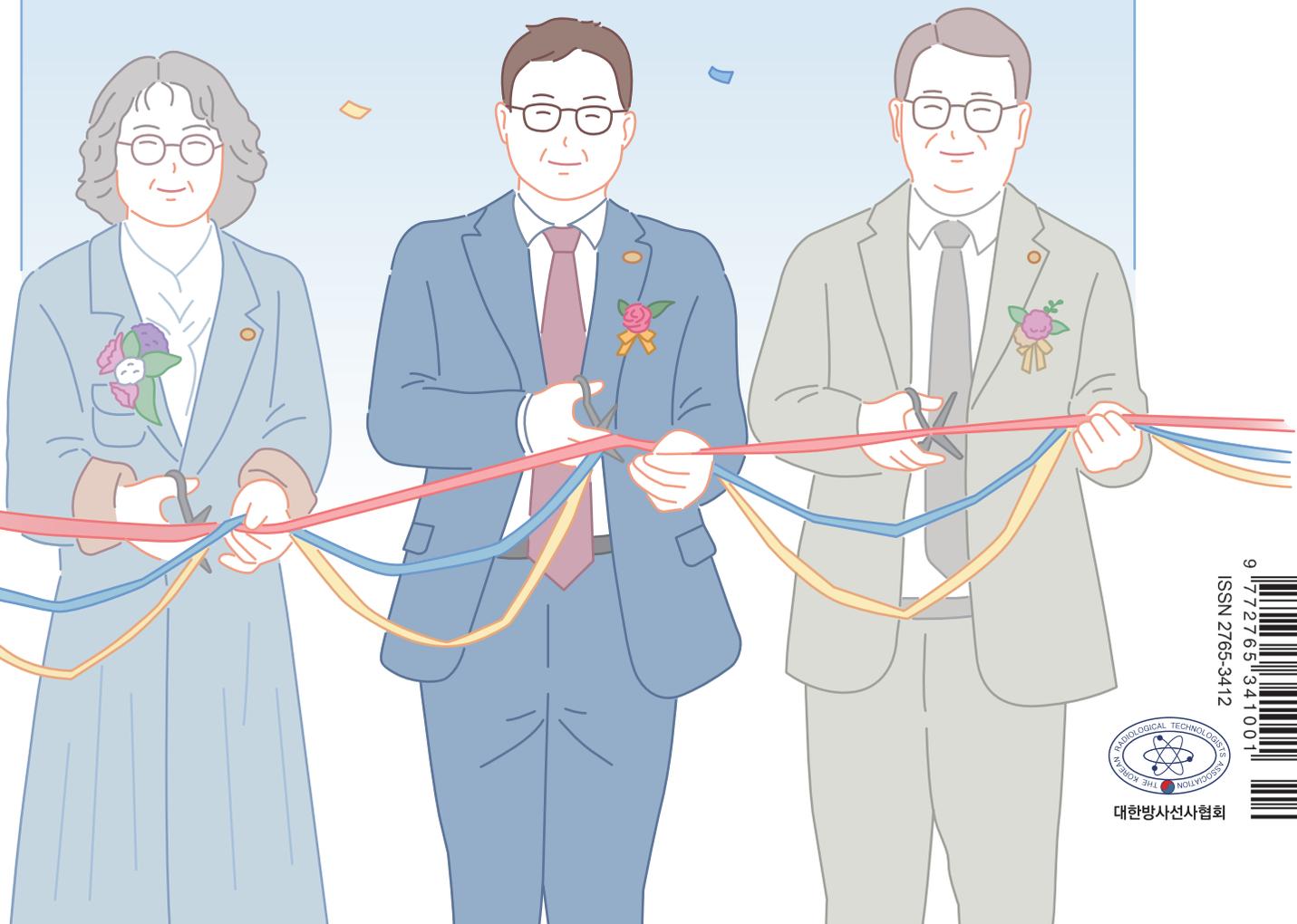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400

방사협보 2024 vol.400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The 59th Congress of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 International Conference



9 772765 341001
ISSN 2765-3412



대한방사선사협회

WITH KRTA

2024 vol.400



표지 이야기

“사람을 향하는 기술, 세상을 바꾸는 방사선사”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제 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사람을 향하는 기술, 세상을 바꾸는 방사선사”라는 주제로 11월 16일 The K 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발행일 2024년 12월 23일(통권 400호)
 발행인 한정환(대한방사선사협회장)
 편집위원장 조원홍(삼성서울병원)
 미디어혁신이사 임기선(충북대학교병원)
 편집위원 조선일(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양민재(서울대학교병원), 심지나(세브란스병원), 이호일(세브란스병원), 서영석(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인성(이대목동병원), 성열훈(청주대학교), 김규형(영지병원), 김기정(건국대학교병원), 최관우(원광보건대학교), 손진현(신구대학교), 안예은(대한방사선사협회)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전화 02-576-6524
 팩스 02-576-6526
 이메일 krta@krta.or.kr
 홈페이지 www.krta.or.kr
 광고 문의 협회 02-576-6524
 편집/디자인 여울
 인쇄 송현문화



WITH KRTA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WITH KRTA는 협회 홈페이지(www.krta.or.kr)와 웹진(webzine.krta.or.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WITH KR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 08 중앙회 소식
발로 뛰는 협회
KRTA News
- 25 시도회 소식
- 36 전문학회 소식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 42 Together
미국 방사선사의 공식명칭, 학력 및 분야 표기 그리고 주사 행위에
관련하여
- 45 History
그때와 지금
- 50 Review
원로회원과 함께하는 역사 속 이야기
- 52 Review
60년의 역사를 함께 걸어온 역대 리더들의 지혜를 듣다
- 54 Insight
영국의 응급영상의학과 레드닷 시스템(Red Dot System)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 60 Study
논문작성시 유용한 프로그램 ChatGPT
- 64 Sketch
스리랑카 국제교육 심포지엄 행사 참가
- 66 Webtoon
숨 참으세요



We are RT's

- 40 공지사향
보수교육 이수 면허신고 하기!
방사선 방어시설인 제어소
- 69 퀴즈 이벤트
독자퀴즈

방사협보 400호 발간 축하 메시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방사협보가 400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협보는 방사선사들의 소통 창구이자, 학문적 성과와 협회의 활동을 알리는 중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방사협보의 지난 여정과 다음 여정을 응원하며 축하해주셨습니다.

WITH KRTA 방사협보가
어느덧 400호를 발간합니다.
협보는 방사선사 회원들의 소식, 정보
제공을 통해 함께 해 왔는데, 앞으로도
회원의 모습과 목소리가 되어
대외적으로도 알리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400호가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한
편집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사협보 포레버~
25대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한정환



방사협보는 소식지로서 그 동안의
방사선사의 과거의 발자취부터 현재의
변화까지 꾸밈없는 살아있는 소식을
전달해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역사가 되고 향후 발전해 나아갈 우리의
미래를 담아내는 소식지로 거듭나며 그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방사협보 vol. 400호까지의 방사협보의
발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5대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 최정욱

방사협보 제4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8년 창간 이후 40여 년 동안
방사협보는 방사선사의 목소리를 담고
회원간의 소통을 이끌며, 함께 성장해온
소중한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왔습니다.

방사선사의 소통과 성장의
중심에서, 이러한 정성과 열정이 오늘의
뜻깊은 결실로 이어졌음을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방사협보는 단순한 소식지를 넘어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빛내는 소중한
등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첨단
의료기술과 방사선학의 발전을 선도하는
지식의 허브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원 간의 유대와 협력은 물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
네트워크의 중심 매체로서도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방사협보가 계속 이어져
나아가는 길에 변함없는 열정과
혁신으로 방사선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제15~16대 회장 김건중

1978

국민의 보건 전문가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헌신을 담아내는 소중한
기록인 방사협보가 400호를 맞이하게
되어 이 글을 빌려 방사협보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오신 대한방사선사협회의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축하를
전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방사협보는 방사선 의료
분야의 발전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방사선사의 학문적 성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귀중한 자료로

자리매김하며,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400호 발간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모두가 이룩해 온 자부심의 결과이며
미래를 향한 도약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방사협보가
대한민국 방사선사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며, 방사선 의료 분야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등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방사협보 4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박성모

방사협보 400호 발행을 축하드리며,
우리 방사선사의 위상과 방사선사의
소중한 기록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정봉재

우리 방사선사의 알권리를 위해 모든
방사선 관련 소식을 전해주는
방사협보의 4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우리 방사선사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회장 김완석

방사협보 400호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에서도 협회의 업무를 전달하고
회원들과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은 대한방사선사협회 창립
60주년 6만 회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사협보가 되길 바라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대전광역시회
회장 박희왕

방사협보 400회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방사협보는 1978년 0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역사와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파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날이 갈수록 많은
이야기와 좋은 에너지를 담고 있는
협보의 지난 행보를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원 모두 2024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5년에도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 김청모

congrat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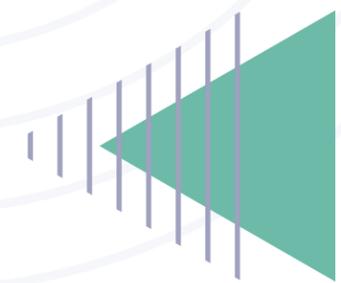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역사가 60년이
되어 간다는데 그 오랜 세월동안 어찌
고요하고 평안하기만 했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 방사선사들이 잊어서는
안되는 사실들과 소중히 여겨야만 했던
수많은 사건과 추억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전공지식들을 방사선사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달해 준 매우 고마운 신문!

대한방사선사협회 '방사협보'의
제4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대한민국 방사선사들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또 방사선사들로부터
아끼고 사랑받는 '방사협보'가 되기를
마음속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방사협보' 파이팅!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회장 김준규



방사선사들의 희노애락(喜怒哀樂)과 함께 해 온 방사협보 4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7만 방사선사들의 외침과 권익수호(權益守護)를 위해 언제나 노력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람은 없어져도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글로 기록된 방사협보도 400호가 아닌 1,000호 또는 그 이상을 넘는 호가 발행이 되어 방사선사들의 역사와 전통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기여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방사협보가 끊임없는 노력과 정진(精進)을 통해 '절차탁마(切磋琢磨)' 하여 방사선사들을 대변하는 좋은 소식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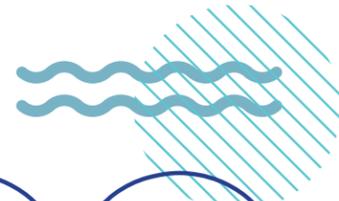
다시 한번 방사협보 4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회장 김광수

400

모든 방사선사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방사협보의 4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방사선사들의 소식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대한군진방사선학회
회장(대) 황위섭

방사협보 4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방사선사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방사협보가 벌써 400호를 맞이했네요! 그동안 많은 분의 노력과 열정이 모여 지금의 멋진 방사협보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400호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들이 가득할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방사협보가 대한민국 방사선사분들의 소통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방사협보 파이팅!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회장 김상현



오랜시간 이어진 방사협보가 어느덧 400호 발행을 앞두고 있다니, 제 일처럼 너무 신나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추앙합니다. 매 호마다 내용과 디자인이 점점 더 세련되고, 알차게 꾸며져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방사선사의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되길 응원하며,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회장 구혜정

안녕하십니까, 방사협보의 400호를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방사협보는 회원 간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협회와 여러 전문 학회 간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귀중한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방사선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저희 대한방사선치료학회는 방사협보를 통해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400호 발행을 계기로 방사협보가 더욱 빛나는 도약을 이루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함께 이 여정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방사협보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방사협보 4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방사선치료학회
회장 백금문

대한민국 방사선사의 역사기록지 방사협보 4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역사의 시간을 함께 하셨던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방사선사의 NEWS가 되고 미래 방사선사의 나아갈 방향을 가르키는 나침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대한영상치의학기술학회
회장 김승태

방사협보 400회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협보는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내용으로 회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매체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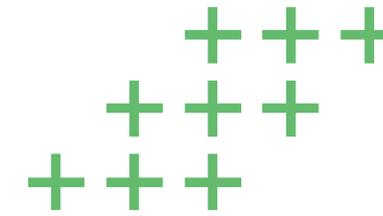
대한CT영상기술학회
회장 김정훈

방사협보 4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뒤에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을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방사선과학회
회장 김성철

역사의 기록이 그 분야의 전문성을 말해줍니다. 방사협보 400호는 방사선사의 땀과 노력 그리고 열정의 역사이며 미래의 초석입니다!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25대 방사협보 편집위원
청주대학교 교수 성열훈



대한방사선사협회 소식지인 방사협보가 창간 4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역사와 함께해온 소중한 업적입니다. 방사협보는 회원들에게 최신 정보와 소식을 전달하며, 방사선사 커뮤니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방사선 분야의 발전과 회원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방사협보의 성과는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협회의 목소리로 작용하여 방사선 분야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우리는 방사선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며 협회의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25대
총무이사 차상영

FIGHTING

방사협보 제4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78년 2월 창간호 이후 40여 년이 넘는 시간 6만 회원의 소식 알리미로 시도회와 전문학회의 활동과 정보제공 및 회원의 소중한 귀한 글들을 담아 네트워크를 이루어내는 노력과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읽을거리가 귀한 시절에는 회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고 불거리가 넘쳐나는 지금도 회원들의 소식을 공유하고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사협보가 방사선사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함께 성장해가는 방사선사 협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25대
교육이사 이진욱

방사협보 400호 돌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사선사의 애환과 함께해 왔고,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 주고자 한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해 왔고, 앞으로도 함께 해나가면서 방사선사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25대
사업이사 이준

병원에 입사해 협회 일을 처음 접했던 것이 방사협보 기자 역할이었습니다. 참 많은 회원들의 소식과 동향을 전해온 방사협보가 벌써 400호를 발간한다니 그 감회가 매우 뜻깊습니다. 늘 저희 회원들의 크고 작은 소식과 주변 의료변화를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하는 방사협보의 발간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25대
법제이사 김창욱**

방사협보 400호! 그리고 협회 60년! 짧지 않은 세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 순간도 500호를 발행하게 될 미래의 어떤 시점에 발자국처럼 남아있을 것이기에 소중하게 기록되고 간직하길 바라며 4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쪽 방사선사들의 산증인으로 기록되길 기원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25대
미디어혁신이사 임기선**

방사협보 4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읽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병원 생활을 시작하고부터 여러 직종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읽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읽은 협보가 쌓일 때마다 부정적이었던 방사선사의 인식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는 방사선사로서 늘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협보 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25대
재무이사 김병택**

방사협보 400호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선배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있었기에 방사협보가 400호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더욱 빛나길 바라며, 함께 즐기고 더욱더 발전하는 협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방사협보 편집위원 백인성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우리 방사협보가 400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사협보 400호라는 오랜 시간 동안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학생, 저희 직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에게 우리 방사선사의 이야기와 수많은 정보를 교류하며 소통의 창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그 명맥을 잘 이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사협보 편집위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고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다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이호일

국내를 넘어 해외 이모저모 반가운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사협보의 4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매번 기대하며 책자를 열어봅니다. 그간 방사협보를 편찬하셨던 많은 선생님들의 손길에 감사를 드리며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이신 모든 방사선사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500호, 600호, 1000호까지 쭉욱~ 기대해봅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25대
총무부장 김계선**

우리 방사선사의 과거·현재·미래를 기록하는 방사협보 400번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장에서의 생생한 기록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사협보 편집위원 김규형

2024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중앙회 소식 _ 08

발로 뛰는 협회
KRTA NEWS

시·도회 소식 _ 25

서울특별시회
인천광역시회
대구광역시회
부산광역시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충청남도회
충청북도회
전라남도회
경상남도회

전문학회 소식 _ 36

대한방사선치료학회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WITH KRTA

발로 뛰는 협회

2024 August

- 8. 2. 협회 소개 및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언론인 미팅
- 8. 3. 법제부 & 교육위원회, 보수교육위원회 간담회
- 8. 6. 법제부 &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업무 활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2차 규정 심사 소위원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회의 사전준비
- 8. 7. 대한수의사회 미팅
법제부 & 대한방사선과학회 업무활동
- 8. 8. 대한방사선사협회 전임회장 미팅
- 8. 9. 제3차 인사위원회의
제5차 상임이사회의
- 8. 10. 무료법률상담(온라인)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제2차 운영위원회의
- 8. 11. 가야대학교 지방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 교육 종강식
소화기내과 전문의 면담
- 8. 13.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제1차 추계 학술대회 TFT 회의
신한카드 & LG CNS 미팅
- 8. 1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50차 임시이사회
법제부 & 교육부 업무활동
머니투데이 기자 미팅
- 8. 16. 경상북도회 2025년 대한방사선사 추계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
(주)제브 대표 미팅
전문방사선사시험원 & 재무부 업무활동
- 8. 17. 연수원 심장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더불어민주당 행사
재무부 업무활동
- 8. 19.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회의 최종점검
제2차 방사협보편집위원회의
- 8. 20. 제2차 방사선법 TFT 회의
제21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사전검수 1차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의
- 8. 21. 협회 협력사 간담회
- 8. 22. 제21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사전검수 2차
(주)제브 이사회
법제부 업무활동
- 8. 23~8. 24.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워크숍
- 8. 24. 제21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사전설치
무료법률상담(오프라인)
2024년 대한방사선사협회 시·도회장협의회 워크숍
- 8. 25. 제21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통합) 합격자 발표
- 8. 26. 보건복지부 간호법 관련 회의
대한의사협회 미팅
- 8. 2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팅
대한의사협회장 위문
재무부 & 법제부 & 전문방사선사시험원 & 연수원 업무활동



발로 뛰는 협회

- 8. 28. 제2차 회관(연수원) 건립 TFT 회의
제2차 법제위원회 회의
- 8. 29.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준비 실무자 2차 회의
- 8. 30.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 국제 컨퍼런스
- 8. 30~8. 31. 제1차 중앙관리위원회 회의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8. 31. 법제부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활동
- 9. 2. 제6차 기록보존위원회 회의
- 9. 3. 제2차 정책연구위원회 회의
보건복지부 관계자 미팅
- 9. 4.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장소 코엑스 마곡 현장 시설 답사
- 9. 5. 공공의료기관 근로자 보건의로 교육
- 9. 6. SRS Technol 주주총회
제6차 상임이사회의
제4차 인사위원회의
- 9. 6~9. 8. 제24차 마카오 방사선사 학술대회
- 9. 9. 동의과학대학교 교육평가원 인증 현판식
법제부 &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업무활동
- 9. 11. 시업체 업무 협의
- 9. 12. 회장 & 법제이사 & 행정사 업무활동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의료법 관련 TFT 회의
- 9. 13.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학생 현장 실습, 교육평가원 설립 관련 TFT 회의
- 9. 21. 제1차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회의
무료법률상담(오프라인)
부산가톨릭대학교 지방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 9. 22. 신구대학교 지방연수원 심장초음파 전문화 교육 개강식
- 9. 23. 산부인과 전문의 업무협의
법제부 & 경기도회 업무활동
- 9. 24. 한국의료방사선 안전관리협회 제4차 운영위원회의
- 9. 25. 제35회 안경사의 날
- 9. 30. 재무부 업무활동

2024 September



발로 뛰는 협회

발로 뛰는 협회

2024 October

- 10. 4.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준비 3차 실무자 회의
- 10. 5. 임시이사회의
- 10. 8. 현장실습 법제화 관련 대한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 회의
- 10. 9. 사사편찬 자료 검토 업무활동
- 10. 10. 사업보험부 업무활동
- 10. 11. 법제부&법무법인 정의 업무활동
- 10. 12. 무료법률상담
- 10. 14. 보건복지부 교육지침 검토 논의 제7차 기록보존위원회 회의
- 10. 15. 제3차 정책연구위원회 회의
- 10. 16. 제3차 방사선법 TFT 회의
- 10. 19. 2024년 제2차 보수교육강사 양성교육
- 10. 21. 제2차 임시이사회 현장실습가이드라인 지침 관련 TFT 회의 재무부 업무활동
- 10. 22.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준비 4차 실무자 회의
- 10. 23. 보건의료연대 前 대표자 미팅
- 10. 24. 제7차 상임이사회의
- 10. 25.-10. 27. 제32차 중국 방사선사 학술대회

- 10. 27. 법제부 업무 회의
- 10. 28. 디케이메디칼 대표이사 미팅
- 10. 29. 제10차 대한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 정기회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국회 토론회 제3차 운영위원회의
- 10. 30. 재무부 업무활동 2024년 학술대상 심사 회의 윤리위원 간담회
- 10. 31.-11. 3. 제1차 일본학술대회

2024 November

- 11. 5. 법제부 업무활동 현장실습 법제화 TFT 회의
- 11. 6. 법제부 & 강원도회 업무활동 시·도회 감사 진행사항 및 결과 보고 회의
- 11. 7. 신구대학교 방사선학과 50주년 행사 제2차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상임이사 업무활동 시·도회 보수교육비 관련 회의
- 11. 9. 제3차 법제위원회
- 11. 1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51차 임시이사회 정책연구원 업무활동
- 11. 12. 법제부 & 대한 CT 영상기술학회 재무부 & 총무부 업무활동

- 11. 13. 영상품질관리원 회의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준비 제5차 실무자 회의
- 11. 14. 한국방사선진흥협회_KARA 2024 개최 및 시상 법제부 & 법무법인 일현 업무활동
- 11. 16.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 11. 18. 재무부 업무활동 법제부 & 전임회장 & 대의원 임원 업무활동
- 11. 19. 제7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제11차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회의
- 11. 20. 국회 비서관 미팅

- 11. 23. 기록보존위원회 60년사 자료검토 및 제8차 기록보존위원회 회의 무료법률상담
- 11. 25. 제1차 연수원운영위원회의
- 11. 26. 보수교육 관련 업무활동
- 11. 27. 제3차 전문방사선사 운영위원회의 제9차 상임이사회의
- 11. 28. (주)제브 업무협의 특별감사 사전준비 회의
- 11. 30. 2024년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추계 심포지엄 (사)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회의 2024 추계 학술대회 특별감사



'사람을 향하는 기술, 세상을 바꾸는 방사선사'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는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내빈을 모시고 학술적 교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많은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주제의 강연, 공청회, 최신 장비 전시 부스 등이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에게 의미 있는 학술적 경험을 제공했다는 호평을 얻었다.

'사람을 향하는 기술, 세상을 바꾸는 방사선사'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1월 16일 The-K 호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 및 국외 회원, 외빈, 방사선(학)과 재학생, 협력사 등을 포함하여 총 1,500명이 참가하였다.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2024년 11월 16일(토) The-K 호텔 서울에서 개최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테이프 커팅식

내부 초청 인사로는 협회 전임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 및 부설기관장, 각 시도회장, 전문학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외부 초청 인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 더불어민주당 직능위 전재진 수석 부의장,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오유환 회장,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성경 회장, 대한안경사협회 허봉현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지형 부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육군외정병과장 서청수 대령,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한정환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 ISRRT(세계방사선사회) Napapong 회장, 일본, 대만, 태국, 마카오 각국 회장과 중국 전임 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였고,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간사,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회장이 영상 축하 메시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면 축하를 전했다.

한정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제25대 집행부는 협회 창립일인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분들과 함께 '방사선사의 역할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전문보건의료인으로서 방사선사의 역할과 고유의 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간호법 국회 통과와 관련하여 우리 고유 업무의 침해가 없도록 국회, 정부, 유관 단체와 소통하며 지켜냈고, 앞으로도 타 직역이 우리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유관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대회사 중인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방사선사들은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 방사선 의료 기술을 통해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이번 학술대회는 방사선사들의 전문성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이날 개회식에서 ISRRT와 공동 수여하는 린트겐 어워드상은 ▲이정규(협회 제17대~18대 전임회장), ▲조남수(협회 제19대~제20대 전임 회장)에게 수여됐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이정근(백운요양병원), ▲이승규(대한방사선사협회), ▲김준규(강북삼성병원) 회원이 수상하였고,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은 ▲김우진(삼성메디슨), ▲이주형(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조선일(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유제준(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정강교(안동병원) 회원이 수상하였다. 감사패는 협회 발전에 기여한 ▲ISRRT(세계방사선사회) Napapong 회장, ▲제브 하태성 대표이사,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이준혁 대표이사, ▲바이엘코리아 Andre 대표이사, ▲메디칼스탠다드 이승묵 대표이사가 수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총회장상은 ▲이진옥(충남대학교병원) 회원이 수상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회원 연구 논문은 포스터를 포함하여 56편, 국제논문 25편, 재학생 68편으로 총 149편이 발표되었으며, 초청 특강 및 심포지엄, 전시 부스 개관 등으로 회원 간의 지식 교류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심사를 통한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ISRRT, 린트겐 어워드상을 수상한 이정규(전임회장, 우측 두번째), 조남수(전임회장, 우측 세번째)



International Seesion



유방영상기술

◆ 최우수 슬로건상

임시하(대구보건대학교)

◆ 장학금 수여

이채영(가야대학교 방사선학과), 김우성(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정건우(마산대학교 방사선학과), 조은별(백석문화대학교 방사선학과), 최희진(부산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유채림(신구대학교 방사선학과), 장세중(전주비전대학교 방사선학과), 황유정(춘해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 협회장 표창

김태윤(국립암센터), 최신철(이대서울병원), 김영범(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최보람(삼성서울병원), 임종윤(한양대학교병원), 연구진(삼성서울병원), 한병문(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한현석(서울대학교병원), 주영탁(중앙대학교병원), 이동준(일산백병원), 김진수(용인세브란스병원), 김기정(건국대학교병원), 김나영(성남수정구보건소), 이창일(국군양주병원)

◆ 우수전문학회상

구혜정(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최승욱(대한방사선보건학회)

◆ 포스터 최우수상

신민준(동의대학교)

◆ 포스터 우수상

금종완(세브란스병원), 김경환(이대목동병원)

◆ 우수 구연상

장수한(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김현지(세브란스병원), 유연옥(국립암센터), 손봉국(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하지수(서울대학교병원), 박정빈(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박세연(이대서울병원), 김광오(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중호(아산충무병원), 김두현(강동경희대학교병원), 민병선(세브란스병원), 신은혜(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은석(항공우주의료원), 신준봉(강원대학교병원), Chin Tsao Huang(Cathay General Hospital, Taiwan)

◆ 학술대상

심지나(세브란스병원)



이번 학술대회는 외국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ISRRT Napapong Pongnapang 회장, 일본 Katsuhiko Ueda 회장, 대만 Kuei-Yuan Hou 회장, 태국 Sala Ubolchai 회장, 중국 Fu Haihong 전임 회장, 마카오 Fernando Leong Kei 회장과 각국 회원, 코트디부아르 회원 등이 참석하였고, 전 세계 방사선사들이 하나 되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해외 회원들도 연구 논문, 최신 검사 기법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방사선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경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1차 정책연구공청회’에서는 ‘연회비 납부율 향상을 위한 납부 방법 일원화 및 납부 제도 개선 정책 연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해당 과제는 ‘연회비 납부 방법 일원화 및 납부 제도 개선’을 목표로 진행되었고, 내·외부 전문가 패널과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며, 발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연회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2025년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협회의 역사와 미래를 조명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원로회원과 함께하는 역사 속 이야기’라는 주제로 협회 발전에 기



여한 원로회원분들을 모시고, 협회의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건과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역대 회장님들과 '전임 회장 인터뷰'를 통해 전임 회장들은 각자의 책임기간 동안 주요 활동과 경험을 공유하며, 협회의 비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수집된 내용은 협회의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될 60년사 책자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폐회식에서 “협회를 ‘사람을 향하는 기술, 세상을 바꾸는 방사선사’라는 주제처럼 방사선 의료 기술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발전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이번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한 집행부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하며,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성료했다. 다가오는 2025년은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로 이를 계기로 국내 방사선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위상을 높이고, 방사선사 비전을 더욱 확고히 할 방침이다.



전문학회 총회 및 회칙변경 절차에 대한 포럼



핵의학기술

원로회원과 함께하는 역사 속 이야기



제차 정책연구 공청회

학생 현장(임상) 실습 법제화 실행에 따른 공청회



전문방사선사 온라인 시험 전국 4곳(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동시 시행



전문방사선사 시험원은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방사선사 양성을 목표로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시행관리의 효율화 및 출제관리의 안정화를 위해 전문방사선사를 배출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협회 산하 위원회이다.

방사선사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유능한 방사선사의 양성 및 교육을 위해 전문방사선사자격인정에 관한 시험의 연구개발, 관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전문화교육은 지역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업무 분야별로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다.

2024년 8월 25일, 처음으로 수도권(성남) 신구대학교 동관, 중부권(대전) 건양대학교 대전 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영남권(대구) 대구보건대학교 연마관, 호남권(광주) 동강대학교 전산교육관에서 전국 4곳 동시 시험을 시행했다.

사업내용

-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신규 문항개발 및 출제관리
- 18개 종별 문제은행 및 자료은행 관리
-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온라인 시스템 관리
- 전문방사선사 자격제도의 국제화 강화
- 출제문항에 대한 체계적인 문항분석 및 통계
- 시험 및 평가에 관련된 기초 및 응용 연구사업 수행
- 전문학회 및 교육기관에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자문 및 정보제공
- 전문방사선사 시험원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심의, 의결
-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의 지역별 분산 시행 및 응시자 접근성 강화
-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및 방사선 의학물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교부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시행 분야 현황

국제전문방사선사	영상정보관리 전문방사선사	방사선정도관리 전문방사선사	전산화단층촬영(CT) 전문방사선사
	방사선안전관리 전문방사선사	자기공명영상(MRI) 전문방사선사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복부)
	유방 전문방사선사	치료 전문방사선사	핵의학 전문방사선사
국내전문방사선사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산부인과)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유방)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심장)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혈관)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근골격)	투시 전문방사선사
	혈관중재 전문방사선사(일반, 심혈관)	방사선 의학물리사	

제21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수석합격자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통합)

No	응시부문	성명	근무처
1	전산화단층촬영(CT) 전문방사선사	김광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	치료 전문방사선사	김성민	삼성서울병원
3	자기공명영상(MRI) 전문방사선사	서동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4	유방 전문방사선사	육정원	삼성서울병원
		한다혜	삼성서울병원
5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복부)	석보배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6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심장)	백은비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7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산부인과)	홍수민	웰하이여성아동병원
8	투시 전문방사선사	최원식	중앙대학교광명병원
9	영상정보관리 전문방사선사	김우섭	한양대학교병원
10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유방)	빈연희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정효은	SM영상의학과
11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혈관)	김민경	경산중앙병원
12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근골격)	구본열	
13	혈관중재 전문방사선사(일반)	박준호	아주대학교병원
14	핵의학 전문방사선사	권현희	경희대학교병원
15	방사선 안전관리 전문방사선사	박주언	서울대학교병원

*합격자가 1명인 분야는 수석합격자 발표명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4차 마카오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참석

2024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마카오에서 '제24차 마카오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전 세계 방사선사협회와 방사선사들이 모여 방사선 관련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마련된 국제적인 행사로 각국의 방사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이민우 안전관리이사, 유진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회장, 김정훈 CT영상기술학회장이 대표자로 참석하여 세계 방사선사들과의 국제교류를 한층 강화했다.

학술대회 일정

이번 대회는 9월 6일 마카오 갤럭시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영 만찬(Dinner)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이 진행됐다. 9월 7일 개최된 웰컴 파티(Welcoming Party)에서 ISRRT(국제 방사선사 및 방사선기술사 협회) 나파퐁(Napapong) 회장과 탄척위(Tan Chek Wee) 부회장과 면담을 통해 방사선사 분야의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9월 8일에는 CPD ASIA 이사회(CPD ASIA Board Meeting)에 참석해 아시아 방사선사 간의 전문성 강화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같은 날 열린 학술대회 본 행사에서는 한국의 첨단 방사선 기술과 최신 동향을 소개하며 세계 방사선사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특히, 갈라 디너(Gala Dinner)에서는 각국 대표단과 선물 교환식을 통해 문화적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기념품과 선물을 준비해 전달하며 국제적인 관계를 한층 돈독히 했다.

주요 국제 교류 내용

9월 7일에 진행된 일정에서 이민우 안전관리이사도 ISRRT(세계 방사선사회)의 Napapong 회장, 탄척위 부회장을 만나 대한방사선사협회의 향후 국제적 업무 방향성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마카오 코라 회장, 페르난도 의장을 만나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대표하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것을 약속했다.

9월 8일 진행된 CPD ASIA Board Meeting 참석하여 CPD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4차 마카오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대회식' 단체 사진



제32차 중국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참석

2024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제32차 중국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 세계 방사선사협회와 방사선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의료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과 최용석 전문방사선사시험원 원장이 참석하여 국내 방사선 분야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세계 방사선사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했다.

학술대회 일정

10월 25일, 중국 정저우 신정 국제공항에 도착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한정환 회장과 최용석 원장은 도착 직후 열린 International Session에 참석해 전 세계 방사선사들과 함께 학술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저녁에는 환영 행사인 Gala Dinner에 참여해 각국 방사선사 협회 회장 및 관계자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방사선사협회 활동과 비전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 중 기념품을 교환하며 한국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문화를 소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국제 교류 내용

10월 25일에 진행되었던 International Session 행사에서는 대

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한국 방사선사의 최신 기술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에는 정저우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해외 대표단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한국, 태국, ISRRT, 홍콩, 마카오, 일본 등 각국 방사선사협회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방사선사의 국제적 역할과 최신 의료 기술의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국가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정환 회장은 "방사선 분야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비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59차 대한방사선사협회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방사선사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주요 일정

- 2025년 제25차 AACRT Chiang Mai 태국 개최
- 2025년 제33차 CSIT 중국 국제 학술대회 Shanghai 개최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International Session에서 주제 발표하는 모습(좌)과 CSIT(중국) 주최 및 해외 대표단 회의 현장 모습(우)



48만 의료기사의 업무영역 수호와 발전을 위한 제7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 성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한정환, 이하 의기총)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기사의 업무영역 수호와 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보건의료 인력으로서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해 '제7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2018년 1월 5일, 제1회 보건의료기사의 날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이광우),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 대한작업치료사협회(회장 이지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백설

경), 대한안경사협회(회장 허봉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8개 단체와 함께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다.

지난 11월 19일(화), 대한안경사협회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제7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에는 의기총 각 단체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직능위 전재진 수석 부의장,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허영 부이사장, 각 단체별 회장 및 회원 등 총 100여 명 회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정환 총회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내외빈 축사, 2024년 의기총 활동 보고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케이크 커팅식, 단체사진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정환 총회장은 기념사에서 "보건의료기사의 날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48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 8개 단체는 의료 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정부에서도 각 지역의 업무영역에 대한 존중과 의료기사분들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직능위 전재진 수석 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48만 의료기사의 업무영역 수호를 위해 정부에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등 의기총 여정에 동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국회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의 영상 축사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서면 축사를 통해 '제7회 보건의료기사의 날'을 격려와 축하해 주었다.

이어 2024년 의기총 활동 보고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단체의 권익옹호, 상호 간 친목 교류, 의료기사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진행된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포상으로는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맡은 바 직



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회원 대상으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부터 진행되었다. 표창 수상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김창욱(서울성모병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임용(동의대학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민형(부산대학교병원)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황호성(광주한방병원)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전정호(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채미정(기분좋은치과의원)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김혜정(삼성서울병원) ▲대한안경사협회 박상진(주)스타비전) 회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위원회 표창으로는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표창 수상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재일(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문병석(여수애양병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윤환(군장대학교)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항숙(대전보건대학교)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박재연(대명치과기공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심연수(선문대학교)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황규연(부산대학교병원) ▲대한안경사협회 김영미(성모안경) 회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7회 보건의료기사의 날을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식에 이어 '대한민국 국민 건강 책임지는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피켓 이벤트를 진행하고 성황리에 기념식이 종료되었다.



육군 의정병과 창설 76주년 기념행사 개최

육군 의정병과는 지난 11월 1일,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방사선(학)과 출신인 제30대 의정병과장인 서청수 대령을 중심으로 '제 76주년 육군 의정병과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기념행사는 전, 현직 육군 의정병과원과 대한병원 행정관리자협회장, 건양대학교 총장 및 대구보건대 부총장, 한정환 협회장 등이 참석하여 76주년을 맞이하는 병과의 창설을 축하하고, 의무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정병과의 미래를 구상하기 위한 특강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의정병과 성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특강을 시행했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의정병과 창설 76주년을 맞이하여 큰 축하를 보내며, 의정병과가 수행하는 군 의료발전에 있어 협회가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미래를 같이 그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1948년에 창설된 육군 의정병과는 군의, 치의, 수의, 간호, 의정 등 5개 의무병과 중 하나로 650여 명의 장교들이 활동하고 있으

며, ▲평시 의무부대 병원(원우)행정, 의료관리, 의무군수, 정보작전업무 ▲의무부대 전투태세 유지 및 교육훈련 ▲국방 의무정책을 위한 법규 및 제도발전 ▲미래 의무병과 발전방안 및 국제 의료지원 파병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육군 의정병과에는 방사선사 면허증을 소지한 의정장교 및 의무병이 24명 복무 중에 있다. 의정장교는 유사시 방사선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에 기반하여 다양한 의무정책 수립 및 의료지원을 한다. 의무병의 경우에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입대하여 방사선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후방 각지 군 병원과 의무대에서 의료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 방사선기기 취급 및 촬영 등을 지원하면서 군의관들의 정확한 진단을 돕고, 장병들이 건강한 병영생활을 영위하는 데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창설기념 행사를 토대로 대한방사선사협회와 의정병과 그리고 협회 산하 군진학회 등과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고 있다.



서울특별시회

2024년 서울특별시회 발전을 위한 협력 업체 초청의 밤 행사

2024년 8월 29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성모)가 주관한 서울특별시회 발전을 위한 협력 업체 초청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회와 협력 업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산업과 방사선사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20여 개의 의료기기 및 장비 회사가 참석해 최신 기술을 소개하며 현장 전문가들과 교류하였고, 방사선사의 업무 효율과 진료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첨단 솔루션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행사는 단순한 소개를 넘어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최신 의료 장비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발표하며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협력 업체와 서울특별시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협력의 기회를 모색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박성모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사선 의료 분야와 산업계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며, "향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방사선사의 업무 환경 개선과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한 협력 업체 대표들 또한 "방사선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과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4년 전문학회장 간담회 개최

2024년 9월 3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성모) 주관으로 열린 전문학회장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학회장과 서울특별시회 임원진이 참석하여 학문적 발전과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최신 방사선 기술의 발전 동향과 방사선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각 전문학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학술 교류의 활성화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방사선사의 역할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울특별시회와 각 전문학회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다짐하며, 방사선사의 전문성 제고와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박성모 회장은 "전문학회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가 더욱 강화되어 학술, 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년 제1차~제3차 분회 간담회 개최

하이파이브(경청·공감·배려·수렴·화합) 프로젝트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성모)는 2024년도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중소 병·의원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분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9명 이하 중소 병·의원에 근무하는 정회원이 대상이며, 회원들의 고충 상담 등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시회 운영 방안 설명 및 의견수렴, 회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제1차 간담회는 9월 5일에 「은평구·서대문구·종로구·중구·용산

구·마포구·강서구) 회원들이 대상이었으며, 11명이 참석하였다. 제2차 간담회는 9월 26일에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18명이 참석하였다. 제3차 간담회는 10월 24일에 「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양천구·영등포구」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19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제4차 간담회는 11월 14일 예정이며,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광진구·성동구」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회 임원들이 직접 문자나 전화 통화를 하여 참석 대상 회원에게 간담회의 취지와 목적을 안내하며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간담회는 참석자 및 서울특별시회 회무 및 회원 혜택사업 안내 및 일정 공지, 기타 사항 논의, 화합의 시간 및 간담회 순으로 진행된다.

박성모 회장은 “의정갈등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하시는 여러 회원분들이 서울특별시회를 이루는 근간이라 생각한다”며 “간담회를 진행할수록 회원 여러분들의 고충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회는 더 나은 회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년 제3차~제6차 온라인 보수교육 개최

지난 2024년 7월 21일, 8월 24일, 9월 29일, 10월 26일에 걸쳐 제3~6차 ZOOM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하였다. 각 차수 별로 진행된 강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제3차 온라인 보수교육

제1교시	‘심장수술 환자에서 수술 전후 영상검사의 역할’ 이준호(고려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제2교시	‘MRI 검사의 이해’ 김민석(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3교시	‘방사선치료 이해와 최신경향’ 홍주완(울지대학교 방사선학과)
제4교시	‘의료영상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 김명성(국립암센터 방사선사)

제4차 온라인 보수교육

제1교시	‘갑상선 초음파’ 하정민(드림권내과 방사선사)
제2교시	‘의료 영상장치 정도관리’ 강병삼(신구대학교 방사선학과)
제3교시	‘판독자 관점에서의 흉부 영상검사의 이해’ 유승진(한양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제4교시	‘Cardiac MRI의 이해’ 한용수(한림성심대학교 방사선학과)

제5차 온라인 보수교육

제1교시	‘방사선사를 위한 설문조사 논문 통계의 이해’ 임우택(건국대학교병원 방사선사)
제2교시	‘의료관계법규’ 정홍문(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제3교시	‘심장 MRI 검사의 이론과 임상적용’ 박경진(서울아산병원 방사선사)
제4교시	‘PET의 개발과 최신경향’ 이용기(길병원 방사선사)

제6차 온라인 보수교육

제1교시	‘방사선사가 알아야 할 감염관리’ 이준호(고려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제2교시	‘일반촬영 선량관리(DRL)’ 김정진(서울아산병원 방사선사)
제3교시	‘인공지능 작업 유형에 따른 성능 평가 지표 개념’ 김상현(신한대학교 방사선학과)
제4교시	‘의료영상의 평가’ 김연민(원광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이번 교육은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최신 의료 기술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각 선생님들의 역량 있는 강의는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회 교육부에서는 올 한 해 총 6회의 ZOOM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의료영상학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다양한 주제와 뛰어난 강사진을 초빙하여 질 높은 온라인 보수교육을 계획할 예정이다.



2024 SRTA 가족나들이, '대부도 갯벌체험 행사' 성황리에 진행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성모)가 주최한 '2024 SRTA 가족나들이'가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대부도 두서어촌 체험마을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서울특별시회 회원과 그 가족 및 동료들이 가을의 청명한 날씨와 함께 자연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행사 당일, 참가자들은 4호선 신용산역 광장에서 집결한 후 관광버스를 통해 대부도 두서어촌 체험마을로 이동하였다. 갯벌체험에서는 각종 바다 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맨발로 갯벌에 들어가 해양 생태계를 가까이서 체험해 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체험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흥미롭고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번 갯벌체험에 처음 참가한 한 회원은 “처음으로 참석해 본 행사인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며, 아이들도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행사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꼼꼼히 준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성모 회장은 행사 후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 회원과 가족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친목 행사와 환경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임을 전하였다.

이번 '대부도 갯벌체험' 행사는 서울특별시회 회원 및 가족들에게 자연과의 교감을 나누고, 힐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했으며, 참가자들은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광역시회

의료기사연합회 임시이사회 개최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 인천시안경사회 회관에서 의료기사연합회 임시이사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이사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 5월 9일(금)~11일(일)에 개최 예정인 의료기사연합회 학술대회 준비에 대한 내용으로 2025년부터 진행되는 의료기사연합회 학술대회를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좋은 소식과 더불어 10월에 개최되는 '제60회 인천시민의날 사회공헌행사'에 의료기사연합회가 단체 참석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 각 행사들에서 인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의료기사연합회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산행 개최

2024년 10월 13일 일요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에서는 회원들과 가을의 깊은 향을 느끼고자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산행' 행사를 개최하였다. 135명의 회원들과 함께한 이번 행사는 가을비 예보가 있었지만 다행히 맑고 화창한 날씨 덕분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산행을 할 수 있었다. 인천광역시회 박종창 회장의 짧은 연설을 시작으로 산행을 시작하였고, 오르막길에서는 숨이 차오르기도 했지만 자연을 벗삼아 가을 정취를 만

끽하였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웃음을 나누며 무사히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정상에 도착해 회원들은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며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이번 산행을 통해 인천시회 직원들과 회원들이 더욱 돈독해졌고,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박종창 회장은 "가을 정취가 만연했던 소래산에서 인천시회 임직원들과 회원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물들었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구광역시회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 제2병원 방문

대구광역시회 김청모 회장과 임원 11명은 지난 11월 1일,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 제2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국립 제2병원 대강당에서 환영식이 진행되었으며, 양국의 병원과 의료시스템 그리고 방사선사협회에 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구광역시회 김청모 회장과 이준석 학술이사는 몽골 국립 제2병원으로부터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김청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광역시회 임직원을 환대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오늘의 인연을 시작으로 향후 병원 간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년 대구광역시회 2차 온라인 보수교육 개최

지난 9월 28일, 대구보건대학교 연마관에서 대구광역시회 2차 온라인 보수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날 보수교육은 591명이라는, 지금까지 보수교육 중 가장 많은 회원이 신청을 하였다.

이날 보수교육은 1교시 삼성서울병원 이비인 선생님의 유방촬영 포지셔닝 스킬, 2교시 대구파티마병원 곽동섭 선생님의 CT 검사실에서의 AI 활용과 한계점, 3교시 삼성서울병원 연구진 선생님의 MRI Safety RF에 의한 생물학적 효과의 이해 그리고 4교시는 바이엘코리아 전성욱 선생님의 조영제의 작용기전과 안전한 사용 방법이란 주제로 총 4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되었다.

보수교육의 시작에 앞서 김청모 회장은 임원들에게 가장 많은 회원이 참석한 만큼 보수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 부서별로 빈틈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591명의 회원이 신청한 2차 보수교육은 임원들의 노력과 회원들의 질서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며, 주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는 임원과 회원 모두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도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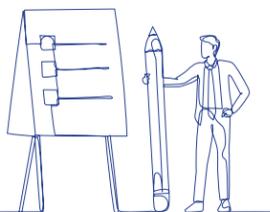
대구광역시회 문화의 날 행사 개최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는 지난 9월 12일 저녁 7시, 대구 한일 CGV에서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대구광역시회 임원들이 수개월 전부터 합심하여 준비했고, 김청모 회장 외 대구광역시회 임원과 130여명의 회원이 방문하여 모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관람했던 영화는 '베테랑2'로 대구 한일 CGV측의 도움으로 공식적인 개봉일보다 하루 앞당겨 상영하여 관람했다.

행사에 참여한 130여 명의 회원은 모두 질서 있게 참여하여, 혼잡한 가운데도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김청모 회장은 상영 직전 인사말을 통해 귀한 시간 내어주시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가 될 것을 약속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제 3차 보수교육

지난 11월 17일 일요일 오전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의 2024년 마지막 보수교육인 3차 온라인 보수교육이 있었다. 이날은 498명의 회원이 신청한 가운데 회원들의 원활한 보수교육 진행을 위해 임원들이 상황실을 만들고 운영을 하였다.

대구광역시회 온라인 보수교육은 매회 500여명의 회원이 신청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대구광역시회는 회원들의 관심과 기대에 충족하고자 김청모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임원들이 많은 회의를 거듭하며 보다 발전적인 보수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보수교육도 많은 회원들의 질서와 관심으로 무사히 진행되었고 김청모 회장은 대구광역시회의 성공적인 보수교육 진행은 임원들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대구광역시회 재학생 장학금 전달식

지난 11월 12~13일 양일간 대구보건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대구보건대학교와 수성대학교 방사선과 재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다. 이날 장학금 전달을 위해 대구광역시회 김청모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각 학교 학과장 및 교수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참석을 하였다.

또한, 장학금 전달에 앞서 협회의 역할과 목적 등을 알리며 협회를 홍보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회원들을 위한 시간을 보냈다. 대

구보건대학교에서는 남성희 총장이 참석하여 재학생 학술대회를 병행 하면서 재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결과를 느낄 수 있었다.

이날 김청모 회장은 개회사에서 다가오는 국가고시에 좋은 결과를 기원하며 앞으로 함께 하는 시간들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회

야구 경기 관람으로 즐거운 2024년 문화행사 성료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윤주호) 2024년 7월 25일, 문화행사로 야구 경기 관람 행사를 개최하였다. 문화의 날 행사는 회원들과의 단합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총 1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경기는 롯데와 SK의 경기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회원들은 유니폼을 착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열렬히 응원하며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윤주호 회장은 행사 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방사선사회 직원분들과 오늘 행사를 즐겁게 참여해 주신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모두가 함께 즐기며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남긴 것 같아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회 & 아시아 방사선사회, 베트남 호치민시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난 2024년 9월 21일(토), 베트남 호치민시 Pham Ngoc Thach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HART(호치민시 방사선사회)-SART(시가현 방사선사회)-BRTA(부산시 방사선사회)-NTPART(뉴타이페이시티 방사선사회) 4개 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치민시-부산광역시-시가현-뉴타이페이시티 방사선사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부산광역시회는 윤주호 회장, 윤상근 부회장을 비롯하여 국제논문 발표자 4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인원이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부산광역시회 회원 중 4명의 회원 논문이 채택되어 국제학술대회 구연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부산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 중인 박헌일 회원은 「Evaluation of the Usefulness of CT Images using Turbo Flash Mode during CT Scan for Emergency Patients」의 주제로 논문구연발표를 하였으며, 부산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근무 중인 박성국 회원은 「Dosimetric Evaluation of VMAT Beam Arrangements in Hippocampal-Avoidance Whole Brain Radiation Therapy Using Elekta Monaco RTP System」의 주제로 논문 구연발표를 하였다.

동아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 중인 김민규 회원은 「Single-institution data collection study for investigation of complications and trends following the use of contrast agents in Computed Tomographic patients」의 주제로 논문 구연발표를 하였다. 부산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 중인



김현겸 회원은 「Evaluation of Spatial dose for Portable X-ray Examination according to distance using Monte Carlo method」의 주제로 논문 구연발표를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제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일본 시가현 방사선사회, 대만 뉴타이페이시티 방사선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였다. 협회 간 교류 방법 등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더 나아가 동아시아 방사선사회 간의 인적 교류 및 학문 공유 등을 통하여 협회 상호 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24년 3차 온라인 보수교육

지난 2024년 9월 28일(토), 부산광역시회는 2024년 제3차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총 449명의 회원이 총 4편의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으며, 임직원들의 노련한 진행으로 차질 없이 보수교육에 참여한 모든 인원이 무사히 보수교육을 완료했다.

이날 진행했던 보수교육 강의로는 1교시 정호용(대한 Shield 엔지니어링) - MRI실 전자파차폐의 이해와 최신동향, 2교시 김기환



(동아대학교병원) -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반응에 관한 한국 임상진료지침, 3교시 박성국(부산대학교병원) - 최신 방사선 치료 기술, 4교시 배상희(SH교육컨설팅 대표) -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요.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되었다.

윤주호 회장은 앞으로도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부산광역시 의료기사연합회 봉사단, UN기념공원에서 뜻깊은 헌화와 환경 정화 활동 실시

2024년 11월 2일,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 윤주호 회장 외 4명은 부산시의료기사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UN기념공원에서 추계 봉사 활동을 개최했다. 봉사 활동은 매년 가을마다 시행하는 행사로 회원들의 단합과 소통을 위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헌화를 하고, 역사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전쟁의 비극과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평화공원으로 이동해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회원들은 쓰레기 수거와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평화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이바지했다. 윤주호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역사적인 장소를 돌아보고,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회

제7차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성황리에 개최

대한방사선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가 주최한 제7차 하이브리드 학술대회가 지난 9월 21일 원주연세의료원 루가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출발, 더 나은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 아래 방사선사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최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현장에 88명, 온라인으로 165명이 참석했으며, 도내 대학 재학생 20여 명과 내외빈 10명이 함께해 열기를 더했다.

학술대회는 최용복 총무이사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이흥규 강원특별자치도회장의 개회사,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의 격려사, 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흥규 회장은 "우리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사선사들이 최전선에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방사선사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한정환 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방사선사의 역량과 이미지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라며, "협회가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도 축사에서 방사선사의 역할이 현대 의료에서 필수적이며, 이들의 헌신 덕분에 환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학술대회 주요 내용 및 시상식

학술대회에는 회원 논문 발표가 이어졌으며, 강릉아산병원의 손다환, 춘천성심병원의 윤희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박슬기, 강원대학교병원의 김영후 방사선사가 각각 어깨관절 유소견 환자 유방촬영법, 관상동맥 CT 영상 최적화 연구, 방사선사의 수정체 피폭선량 평가, 방사선사의 작업자세 분석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송호대 박정훈, 연세대 미래캠퍼스 조우리, 한림성심대 오정희, 강원대 김영범 학생이 방사선학과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고, 춘천성심병원의 박건희 회원이 협회장상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최효석 회원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하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19대 이길원 전임 회장님부터 강원특별자치도회 발전기금 모금이 시작되었고, 25대 이흥규 회장님에 이르러 발전기금 목표액이 달성되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전임 회장님들께 공로상을 수여하였고, 특히 6대, 8대 박봉림 전임 회장님께서는 특별공로상을 전달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특강 및 전시부스

특강에서는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함께하는 KRTA'를 주제로, 이진욱 협회 교육이사가 '의료영상 품질관리'에 대해, GE헬스케어의 홍승기 부장이 '조영제 사용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 외에도 DK, MEDRAD, CMS, SAMSUNG 등 업체가 전시부스를 마련해 장비 소개와 함께 참가자들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방사선사들이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학술대회를 통해 방사선사로서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새롭게 다지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것을 약속했다.

충청남도회

충청남도의료기사총연합회, 2024 환경정화활동

2024년 10월 13일(토), 천안 원성천 일대에서 '충청남도의료기사총연합회 2024 환경정화활동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보건정보관리사협회, 대한직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충청남도회 7개 단체



총 50명의 회원과 가족 등이 참여하였다. 각 협회별 소개 시간을 갖고 원성천을 따라 주변의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정화활동과 함께 단합을 도모하였다.

이번 2024 환경정화활동은 충청남도 의료기사 등의 단체 간 연합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와 봉사활동에 기여하고자 기획하였다.

임청환 회장은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후 “앞으로도 이번 행사를 통하여 충청남도 의료기사 간의 연대와 협력을 중심으로 더불어 지역의 발전과 소통에 뜻을 같이하며, 지속적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충청북도회

충북도-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보건의료 정책간담회

12월 5일, 충청북도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회장단은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을 만나 의료 현장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점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충북도의 주요 핵심 사업을 소개받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충청북도 의기총 정원희 회장(대한방사선사협회 충청북도회장)은 당면한 현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 사항을 충북도에 전달했다. 의기총의 정식단체 등록, 충북도 보건정책 행사 참여, 면허 신고제 실태조사, 회원의 보수교육 이수 확인,



도지사 표창장 확대 및 보건정책 면담 등, 국민의 보건의료 건강을 위한 각 단체들의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이에 충북도 최승환 보건복지국장은 “모든 일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며, “보건복지업무 현장을 지속 방문하여 도정 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충북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견학 프로그램' 마련



충청북도회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방사선사로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을 주고자 '충북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견학 프로그램에 초청한 학생들은 지난 5월 18일 충청북도회에서 개최한 '충북 방사선사 종합 학술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각 대학교의 방사선과 학생들은 충북대학교병원 방사선사 선배들과 만나 실제 촬영장비와 CT, MRI등을 관찰하고 직접 장비를 구동해보기도 하며, 촬영실 안에서 환자로서 마주했던 경험과는 다르게 촬영실 밖에서 방사선사의 자리에 서서 향후 나아가야 할 길과 미래를 경험할 수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미래의 방사선사로서 책임감과 직업 윤리 의식을 배울 수 있었고,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후배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충청북도회는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방사선과 학생들에게 더 많

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회원들과 학생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방사선사의 미래에 좋은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라남도회

2024년 봉사활동 실시

대한방사선사협회 제25대 집행부는 '소통과 참여, 함께하는 전라남도회 방사선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전라남도회 문철홍 회장 및 임직원은 전라남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국방사선사 한마음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는 광양읍사무소의 맞춤형 복지팀 소속 20명이 함께 참석했다. 봉사활동은 전남 광양시 광양읍에 거주하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손수 반찬 도시락을 준비하여 전달했다.

전라남도회는 매년 지역을 달리하여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문철홍 회장은 “오늘 함께해 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과 지자체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전남도회는 꾸준히 다양



한 이벤트를 준비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 주민과 취약 계층을 찾아 봉사하여 따뜻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상남도회

2024년 제2회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 실시

지난 11월 24일(일) 정봉재 도회장과 임원, 회원 가족 22명이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1층 빵 나눔터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2024 제2회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봉재 도회장과 임원, 회원과 가족 22명이 참여해 진행 되었으며 가족들이 직접 스콘 빵 250개를 만들어 취약 계층에 전달하였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처음 해보는 생소한 작업이었지만 빵을 받은 아이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봉재 도회장은 단순한 기부금 전달이 아닌 경상남도 회원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방사선치료학회

2024년 전국 방사선종양학과 팀(실)장 및 방사선 치료학 지도교수 연수회 성황리 개최

2024년 뜨거운 8월 여름 전국 방사선종양학과 팀(실)장 및 방사선 치료학 지도교수 연수회를 8월 23일 금요일 대전 선사인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전국의 방사선종양학과 팀(실)장 60여 명과 전국 대학교수 10여 명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금문 학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백금문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방사선 치료의 발전과 환자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연수회는 1) 수가 변경 이후 각 병원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최신 SGRT(표적 유도 방사선치료) 수가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2) 최근 보험 삭감 문제와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향후 업무환경 개선 및 환자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김창규 전국 방사선학과 교수 협의회장이 발표자로 나서 최근 임상실습 법제화에 따른 후속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회장은 “임상실습 법제화는 방사선치료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현장 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백금문 대한방사선치료학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학회와 현장 관리자들의 튼튼한 연결을 위해 더욱 많은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학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연수회를 통해 방사선치료 분야의 최신 이슈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2024년 전국 방사선종양학과 팀(실)장 및 방사선 치료학 지도교수 연수회

2024년 아시아방사선치료학회(ARTS) 참석

대만 베이타우시에서 열린 방사선치료학의 현재와 미래

대한방사선치료학회(회장 백금문) 9명의 회원이 2024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만 베이타우시 베테랑병원에서 열린 ‘제11회 2024 아시아방사선치료학회(Asia Radiotherapy Symposium, ARTS)’에 참석하게 되었다. 8개국의 전문가들과 세계방사선사협회장이 모여 방사선치료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

학회 첫날인 11월 8일은 8개국 대표단 회의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학회의 발전 방향과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다. 학회 명칭 변경과 새로운 로고 제작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베트남이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되어 회원국은 총 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저녁에는 환영 파티가 열려 회원국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만 음식을 즐기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11월 9일에는 본격적인 학술대회가 열렸다. 대한방사선치료학회(KOSRT)에서는 ‘Optimizing Head and Neck Cancer Treatment’와 ‘Carbon Ion Radiotherapy Experience’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한국의 선진 방사선 치료기술을 공유했다. 오후에는 타이페이 베테랑병원의 중입자 치료센터를 견학하며 첨단 기술과 운영 체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인 11월 10일에는 대만의 전통 음식 만들기와 시골 지역 탐방을 포함한 문화 체험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젤리 만

들기 활동에 참여하며 현지의 전통 문화를 느끼고 친목을 다졌다. 베이타우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에게 평온함을 선사했다.

이번 학회는 방사선치료기술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대한방사선치료학회는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며 한국의 방사선치료기술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2024년 보수교육 개최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학회장 정희동)는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보험연수교육(보수교육 4시간 인정)을 개최하였다. 역대 최다 인원인 161명의 방사선사 회원과 56명의 중재 시술 및 보험심사 간호사 등 총 217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보수교육은 매년 가을에 열리며,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와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의 후원을 받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적용 및 각종 심사 사례를 공유하는 인터벤션 보험 분야의 유일한 보험 전문 교육이다. 2024년 보험연수교육은 4교시 강의로 안주용(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보험 이사의 진행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다.

- 1교시: 뇌 신경계의 중재시술에 대한 보험/정우상 교수(아주대학교의료원, 신경중재치료의학회 보험 이사)
- 2교시: 심장혈관의 중재시술에 대한 보험/심명보(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대한심혈관기술연구회 보험 이사)
- 3교시: 몸통 사지의 중재시술에 대한 보험/김종호(보라매병원,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보험부장)
- 4교시: 보험계시판의 질의응답에 대한 패널 토의/안주용(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보험 이사)

특히, 4교시 강의에서는 병원별, 시술의 별로 중재시술의 특성과 성격이 다르고, 심사평가의 세밀한 기준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질의가 있었다. 질의 내내 회원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평소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되었다.

정희동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험연수교육은 인터벤션 전문 방사선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높이고, 적절한 급여기준 및 시술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며,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의정 사태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등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와 다양한 급여기준의 변화 및 고시 개정이 있었는데, 이번 보험연수교육을 통해 실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사와 관계자들이 정확한 급여기준을 인지하고 병원별 상황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인사말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가치 있는 학회 발전을 위한 2024년 하계 임원 워크샵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삶이 괴로울 땐 일단 쉬 어라.' 쇼펜하우어는 일과 후에 그날 실패라고 생각된 일에 자기반성을 추구하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삶에 지친 자신을 위해 반성의 시간을 버려두고, 침대에 누워 휴식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며 조언했다. 그리고 휴식 다음 날 눈이 떠진다면 과거를 잊고, 새로운 계획에 목표를 두어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하였다.

현재 의료환경시대에도 각자의 의료기관 분야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임원들의 휴식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하계 워크샵 행사를 개최하였다. 언제나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추구하는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는 더욱 더 가치 있고, 발전하는 학회를 위해 2024년 8월 30~31일 1박 2일간 하계 임원 워크샵을 경기도 유명한 끝자리에 위치한 가평 비올레띠 펜션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광수 회장(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하여 김종성 부회장(서울아산병원), 석종민 부회장(경찰병원), 이성주 총무이사(서울대학교병원), 이종웅 평의원장(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정범 관제이사(서울건국대학교병원), 정재은 연구위원장(대구보건대학교), 한용수 연구위원(한림성심대학교), 정홍문 법제이사(대구보건대학교) 등 임원들이 참가하여 서로 간의 침묵과 화합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더 나아가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과 학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정책과 혁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규합하는 시간이었다.

토론 중 김광수 회장은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임원들은 회원들과 함께 숨 쉬며, 회원들과 상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도 본 학회의 존재 의미는 학회를 위한 회원이 아닌 회원을 위한 학회가 되기를 갈망한다"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회가 더욱 더 발전하길 기대해본다.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Philips MR 7700 시연회 참석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회장 김준규)는 2024년 7월 11일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센터 B1 세미나 룸에서 KSMRT x SMC x Philips 코리아와 함께 'Discover the future of Smart MR Imaging'이라는 주제로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신 MRI 기술의 발전을 소개하고, 새로운 기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필립스코리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3.0 Tesla MRI MR 7700이 삼성서울병원에 국내에서 처음 설치되어 시연회를 겸하는 자리로 진행되어 임원진 및 관계자들의 많은 이목을 끌었다.

MR 7700은 필립스코리아에서 2023년 9월에 출시한 고성능 3.0T MRI 신제품으로 한층 더 진보된 새로운 디자인의 MR Engine 'XP Gradient'를 탑재하여 빠르고 정밀한 고해상도 영상을 구현하고, 최신 인공지능 '스마트 스피드 AI(smart speed AI)' 기술을 통해 빠른 검사 속도와 고품질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상연구에 특화되어 있는 다중핵 검사 기능(Multi Nuclei) 솔루션이 탑재되어 여러 원자들에 대한 신호를 검출하여 수소 원자뿐만 아니라 인(P³¹), 탄소(C¹³), 나트륨(Na²³), 플루오린(F¹⁹), 제논(Xe¹²⁹) 등 6가지 다양한 원자에서 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특화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필립스 MR 의뢰기기 전문가들이 MR 7700의 기술적 특성과 적용사례에 대해 발표 하였고, 인공지능 시기술을 활용한 최신 영상처리 기술과 환자 맞춤형 촬영 기법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한, 삼성서울병원 박진석 방사선사의 실제 시연을 통해 MR 7700의 사용 후기와 검사 시 장점과 단점, 장비의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공명기술학회 측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신 MRI 기술의 발전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앞으로도 최신 의료 기술의 소개와 보급에 기여할 계획이며, 다양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최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필립스 MR 7700 시연회는 자기공명기술학회 및 의료진들에게 최신 의료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행사로 평가되며, 앞으로 새로운 MRI 장비 도입으로 인해 정확한 진단과 환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브란스병원 MRI실 서동원 방사선사 MRI 전문방사선사 시험 수석 합격수기

MRI 검사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생길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때그때 기록해 두었다가 시간을 내어 공부했습니다.

또한, 병원 내에서 실습 학생들을 관리하며, 학생들과 함께 MRI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고, 모르는 부분을 같이 공부하는 과정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고, 스스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입문 강좌와 학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최신 지식과 기술 동향을 익히는 데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떠오르는데, "MRI를 잘하기 위해서는 MRI가 아니라 'MR Why'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고, 왜 그런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상의학 검사가 필요한 환자분들께 최고의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덕분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MRI에 대해 느끼는 재미와 흥미였습니다. 단순히 직무로만 바라보지 않고, 흥미를 느끼고 즐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흥미와 열정이 저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쌓이고 쌓여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나누며, 환자분들께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는 MRI 전문 방사선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원(세브란스병원)



방사선사 면허 관리를 위한 필수 수칙

보수교육 이수 면허신고 하기!!

1 보수교육 이수

- 매년 8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오프라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은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방사선사는 국가면허를 소지한 보건의료인으로 보수교육 이수는 의무 사항입니다.

2 면허신고 하기

-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센터 접속하여 면허신고서 작성
- 보수교육 내역이 면허신고센터에 등록되어야 면허신고 가능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 ①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3 방사선사로 당당하게

-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 시 면허 효력 정지
-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시 면허신고를 실시하는 시점부터 면허효력이 회복됨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Together _ 42

미국 방사선사의 공식명칭, 학력 및 분야 표기 그리고 주사 행위에 관련하여

History _ 45

그때와 지금

Review _ 50

원로회원과 함께하는 역사 속 이야기

Review _ 52

60년의 역사를 함께 걸어온 역대 리더들의 지혜를 듣다

Insight _ 54

영국의 응급영상의학과 레드닷 시스템(Red Dot System)

WITH KRTA

미국 방사선사의 공식명칭, 학력 및 분야 표기 그리고 주사 행위에 관련하여

미국 방사선사는 주마다 표기가 달라도 결국 같은 License이다.

글 김건중(제15대, 16대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우리나라는 '방사선사 면허증'으로 표기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문 면허증의 영문 표기는 'certificate(증명서 또는 면허증)' 그리고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person is licensed as a Radiological Technologist(아래 사람은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Certificate를 영어 사전에서는 증명서, 인증서, 면허증 등 다양하게 해석하여 영문 면허증의 certificate는 증명서라 해석하고,

아래에는 면허(licensed)자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사선사 면허증은 주마다 다르긴 해도 결국 같은 면허증이며 표기만 다를 뿐입니다. 뉴욕주 면허증을 기본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This is to certified that ○○○ L.R.T is entitled to thi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s a Radiologic Technologist.

이를 한글로 옮기면 "○○○ L.R.T.는 방사선사 인증이 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이름 뒤의 L.R.T.라는 명칭의 약어를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Licensed Radiologic

미국 방사선사 면허증은 주 정부에서 위임한 ARRT 시험에 합격하면 주마다 표기가 다르긴 해도 주 정부의 방사선사 면허를 발급받는데, 이 면허가 있어야 ARRT 인증시험 거쳐 다음 전문 방사선사인 CT, MRI 등을 검사할 수 있다.

Technologist'의 약어입니다.

'L'을 licensed인지 또는 limited인지 혼동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면허 번호(license number)가 기재되어 있으니 'License'임이 분명합니다. 간혹 Limited로 혼동하는 이유는 면허증에 기재된 다음 글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 또는 주 정부에서 위임한 ARRT의 시험에 합격하면 일단 주 정부의 방사선사 면허를 받는데 이 면허는 방사선 영상 검사로 한정(limited)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으로 이 면허가 있어야 ARRT의 인증시험을 거쳐 다음 전문 방사선사인 CT, MRI 등 다른 분야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사회 환경도 완벽하지는 않아 ARRT(미국 방사선사인증원)의 CT 또는 MRI 인증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CT 또는 MRI 분야를 절대 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의아스럽긴 하지만 미국엔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육받은 limited radiologic technician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다음에 별도 기술 예정).

덧붙여 미국에는 'radiographer'라는 면허도 없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주 정부의 면허, ARRT의 인증(registered) 그리고 ASRT(미국방사선사협회)의 관계를 정리할 기회를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L.R.T.를 C.R.T. (certified radiologic technologist)라고 표기를 합니다.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는 LRT(Licensed),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는 CRT(Certified), 텍사스는 MRT(Medical), 펜실베이니아주, 일리노이주, 오하이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등은 RT(R), Registered Technologist (Radiography)라고 서로 다르게 표기합니다.

즉, 표기 방식은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명함으로 본 학력과 직군 표기

면허증에 LRT, CRT라고 표기되어있더라도 "L"과 "C"는 면허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명함 표기에는 생략합니다. ASRT(미국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에 2023년 대상을 수여받은 회원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상을 받은 James Reaves라는 회원은 이름 뒤에는 난해한 표기가 있었습니다.

"B.S., R.T.(R)(MR)(CT)"이란 그의 학력과 자격을 나타내는 약어로서 이 약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B.S.:** Bachelor of Science (이학사)
- R.T.:** Registered Technologist (등록 방사선사)
- (R):** Radiography (방사선 영상 검사)
- (MR):** Magnetic Resonance Imaging
- (CT):** Computed Tomography

즉, James Reaves는 이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방사선 영상검사, MRI, CT를 포함한 분야의 등록된 전문 방사선사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미국 방사선사의 주사 행위

미국의 방사선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후 정맥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맥 주사를 할 수 있는 뉴욕주의 방사선사 면



ARRT(미국 방사선사 인증원) 홈페이지

허증에는 주사 허용에 관한 내용의 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Certified to inject per the requirement of section 89.40 of part 89"이고, 다른 하나는 별지에 있는 "Register: Diagnostic with injection"입니다.

면허증 전면의 "Certified to inject per the requirement of section 89.40 of part 89"의 의미는 "주 보건부 규칙 및 규정 제89조의40에 따라 주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증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방사선사가 뉴욕주 법률에 명시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주사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조항은 주사 요건 등을 포함하며 방사선사에게 주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규정입니다.

방사선사의 주사 행위(정맥 주사)는 미국의 각 주마다 법률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도 방사선사가 주사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별 상황을 알아

보면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펜실베이니아주가 각 주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과 인증에 필요한 주사 자격에 대한 교육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가 규정에 따라 미국의 주에서 주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면허증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1) 추가적인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다음
- (2) 인증 시험에 통과해야 하고,
- (3) 주 정부의 보건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방사선사들 모두 주사 허가인증을 받나요?

뉴욕주의 경우 방사선사가 주사 인증을 받기 위한 별도 교육과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방사선사가 자동으로 주사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사 자격을 받지 않은 방사선사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방사선사 주사 행위 관련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방사선사도 주사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과 고려할 사항 그리고 정책적으로 법률 개정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을 착실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K**

미국 방사선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후 정맥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데, 주마다 법률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History



1895 - 2024

그때와 지금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기관지 방사협보 WITH KRTA 400호를 맞이하여 엑스선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무렵부터 2024년까지 회원 간의 소통을 위한 회지, 학회지, 소식지, 방사협보 등의 변화를 협회사, 30년사, 50년사를 기본으로 하여 정리해 보았다.

글 이창엽(대한방사선사협회 60년사편찬소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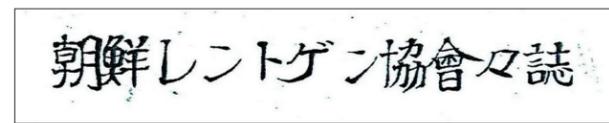
1895 을미사변과 엑스선 발견

1895년에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2개의 역사적인 날, 즉 10월 8일과 11월 8일이 있다. 1895년 10월 8일에는 고종의 비 명성황후를 포함한 조선인 궁중 인사들이 경복궁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집단 살해당한 사건인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1월 8일에 독일 W. C. Roentgen 박사는 엑스선을 발견했고, 그 공로로 1901년 첫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을미사변으로부터 15년이 지난 1910년에는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도 부르는 국권 피탈을 당한 한일합병(韓日合併) 조약을 맺어야 했고, 다음 해인 1911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엑스선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34 조선렌트겐협회 회지

1932년에 조선렌트겐협회가 창설되었고, 1934년 12월 20일에는 조선렌트겐협회 회지(朝鮮レントゲン協會會誌) 제1호를 발행하였다. 전체 회원은 32명으로 회장을 포함한 15명은 일본인이며, 17명은 한국인이지만 의사와 기술원의 구분이 없었고 엑스선의학과 기술의 연구발전 및 친목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회지에는 엑스선 업무에 관한 강좌, 회원소식지, 회원명부, 회칙, 수필 등 모든 분야가 실려 있어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엑스선을 다루는 회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처음으로 시작한 회지이다.



조선렌트겐협회 회지 제1호 제목

1956

1956년 6월 대한방사선기술학회 홍보지인 「단편소식」을 창간하고 같은 해 3차례 발행하였다.

1961 대한방사선기술학회 회지

8.15 광복(1945년), 6.25 전쟁(1950년~1953년), 4.19 혁명(1960년), 5.16 군사 정변(1961년)과 같은 국가적,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빈곤 가운데서 1955년 3월 16일에 한국 방사선기술자들에 의해 창립총회를 개최한 대한방사선기술학회는 1961년 6월 22일에 會誌(회지) 1권 300부 발행을 시작으로 1962년 8월까지 총 4차례 발행하며 250여 회원의 홍보지 역할을 하였다.

1961년 6월 30일에 박양규 회장이 직접 보건사회부를 방문하여 장관, 의정국장, 의무과장에게 학회 회지 제1호를 증정하였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이다. 모든 것이 통제되는 시기에 학회지가 발행되고 학회가 유지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이롭다고 할 수 있다.

회지는 250여 명 회원의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앞으로의 면허 시험에 대비한 강의록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유형선 부회장은 「회지 발행에 즈음하여」라는 인사말을 통해 비록 외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학회운영에 대단히 흥분하였던 것으로 느껴진다.



① 1권(95쪽) ② 2권(86쪽) ③ 3호(80쪽) ④ 4호(48쪽)

1965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창립

1976

1976년 1월에 창간호를 발행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지부의 소식지는 1978년 1월에 17호 발행까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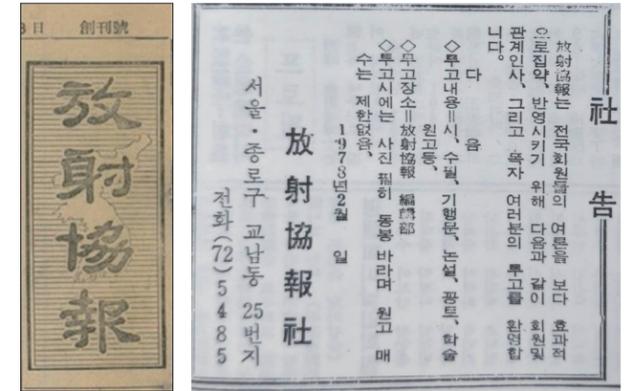
1978 방사협보 창간

대한방사선사협회 창립(1965년)으로부터 12년 후인 1977년 10월 22일 제13차 대의원총회에서 방사협보 발행이 결의되고 정기간행물 등록 절차를 마쳤다. 1978년 1월 26일 문화공보부(다-2276)에 등록하고 같은 해 2월 10일 출간 기념 행사를 가진 뒤 1978년 2월 28일에 타블로이드* 8면을 월간으로 방사협보 창간호(발행인 김천회, 편집인 정환)를 발행하였다. 창간호부터 2006년(제293호)까지 사용된 「放射協報」라는 제호의 글자는 그 당시 의료계의 유명 인사로서 국전 서예 부문 추천 작가로도 알려진 서봉 김사달 박사의 작품이다.

김천회 협회장은 창간사에서 「순수한 학술 활동을 위주로 하여 회원의 자질향상을 꾀하여 왔고 방사선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에 전력한 나머지 회원의 권익 옹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나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전력을 투구할 1단계 사업으로 방사협보 창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협회사(20년사)에는 방사협보 발행 목적을 「70년대의 급격한 과학 문명의 발달은 방사선 기술학의 급진적인 발달을 가져왔으며 회원의 수도 점차 증가해 매년 발행되는 협회지와 학술대회만으로 신기술의 신속한 전달 및 상호 교류에 대처할 수 없고 1976년에 회원명부가 발행되어 회무 등에 홍보를 하였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발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로 기술하였다.

편집 기획, 게재기사 결정 방사협보 발행규정에 의거 설립된 15



명으로 구성된 방사협보 편집위원 월정례회의를 통하여 방사협보 발행에 따른 자문을 하였다.

방사협보는 협회 기관지로서, 홍보지로서 협회소식, 방사선 기술과 의료기술의 정보제공과 회원 동정을 게재하고 방사선 기술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신문인지 정기간행물인지 구분이 안 되었고 신문의 사명인 빠른 소식과 비판이 알차게 들어 있지 않은 면이 있었다.

협보를 발행하는 협회의 고충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발행 초기에는 방사협보사로 상주하는 전임 편집 및 취재 기자 1명이 근무하였고 11개 시도회에 방사협보 담당 기사를 선정하였다. 그 후 400호에 이르기까지 방사협보를 본업이 언론인도 아닌 위원회에서 협보를 내야 하는 고충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며 회원 수는 증가하는데 발행 부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었다.

1987 방사협보 제100호

1987년 4월 20일, 제100호 특집호(발행인 정환, 편집인 김병욱)를 맞이하여 발행기념회를 개최하였고 발행 면수도 기존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하였으며 특히 발행이래 처음으로 1면과 16면에 칼라 화보가 담겼고 2천 년대를 향한 방사선사 「연구하는 방사선사」라는 제목의 특집기사가 10면으로 게재되었다. 신문

* 타블로이드판(tabloid paper)은 일반적인 신문 크기인 블랭킷 판(blanket sheet)에 비해 면적 기준으로 절반 정도의 크기를 말한다. 보통 A3 사이즈(297×420mm) 정도의 크기를 말하지만, 판형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정의는 없다. 타블로이드판 크기는 국가 또는 신문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방사협보는 실측 267×387mm 사이즈로 제작되었다.



1994 지면 변화

1994년 1월 3일(제161호)부터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 협보 활자를 증배하고 1면과 12면은 칼러로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1997 방사협보 제200호

1997년 1월 1일(제195호)부터 협보 인쇄 방향이 세로 읽기에서 가로 읽기로 변경되었다. 1997년 7월 1일 제200호(발행인 김건중, 편집인 박용홍)를 12면에서 20면 특집 증면 발행하였고 김건중 협회장은 「방사협보가 좀더 발전하고 변모된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였으며 「아무리 좋은 기사라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에 회원 곁으로 가까이 가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21세기를 대비한 방사선사의 역할과 이정표를 정립하고자 특집 좌담회 『21세기 방사선사』를 개최하고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4개면을 할애하여 지상 중계하였다. 박용홍 편집인은 『100호와 200호』라는 논단에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여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고 보람과 만족을 추구하여 회원으로부터 사랑 받는 신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해야 된다」고 하였다.

1978년에 방사협보 편집위원 조직이 1999년 02월 12일에 방사협보편집위원회(조남수위원장 외 4명)로 구성되었다.



⑤ 창간호 ⑥ 100호

발행에 관여한 공로로 4명(이찬호, 곽종철, 배용모, 조정호, 조규태)에게 시상하였다. 당시 전국 회원 수는 2867명이었다.

이경희 전 대한방사선기술학회 회장은 「8.15 광복, 6.25 전쟁 등 민족적 시련으로 별로 발전을 못했던 시기였고, 그 후 10년은 전후복구 등 복구기로 우리 학계 역시 겨우 외국에 눈을 돌리게 된 시기였으며 다음 10년 즉 70년대 중반까지는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시기였는 바 즉 교육기관의 설립, 자격의 확립도 경제호황에 힘입어 외국장비의 도입, 바로 이때 우리의 기관지인 협보가 탄생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천희 전임회장은 「방사협보는 방사선과 보건분야의 새로운 정보·기술을 회원 상호 간에 교환하고 전달함은 물론 회원의 동정과 근황을 알리고 사명감을 고취시키므로서 회원 간의 화합과 인화를 도모하는 교량 역할을 다하고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는 언론 고유의 기능을 다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고 여실히 표현하는 신뢰 받을 수 있는 신문이 되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경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1993 방사협보 축쇄판

1993년 1월 25일 방사협보 축쇄판(220×310mm) 상하권 각 1천 부씩 발행하여 유료 판매하였으며 수익금은 환관 건립 기금으로 충당하였다.



⑦ 200호 ⑧ 300호

2015 발행 판형, 발행 주기 변경

2014년 7월 4일 제2차 방사협보 편집위원회에서 기존의 신문 형식에서 A4 사이즈 책자로의 변경안과 분기별 발행 주기가 검토되었고 2015년 2월 28일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되어 1978년 2월 발행이 시작된 타블로이판 월간지 방사협보는 2015년 4월 제360호(발행인 이용문, 편집인 김석태·이익표)부터 국배판(A4) 변형 사이즈(215×280mm)의 계간지로 변경되었다.

이용문 협회장은 제360호 방사협보 계간지 발행에 즈음하여 「방사협보가 최근 IT산업의 혁신적인 발달과 다양화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방사협보의 주요기능인 News Letter의 역할보다는 현시대의 회원들과의 소통을 밀착하게 하고 협회와 회원들의 미래를 위한 알찬 정보들로 가득찬 기관지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는 방사협보로 새롭게 변신하여 계간지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방사협보 계간지 발행 목적을 설명했으며 아울러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변모된 모습으로 역할을 다 할 것과 친근하게 회원들에게 다가가기를 기대하며 유익한 정보지로 활용되는 협보가 되겠다」고 하였다.

2016

ISRRT2016 특별판·제367호(발행인 이용문, 편집인 김석태·이익표)가 36쪽으로 발행되었다.

2017-2024

1978년 창간호부터 2003년까지는 매달 발행되었으나 그 후로는 발행주기가 일정하지 아니하다가 2015년 4월(제360호) 판형과 발행주기의 변화가 생긴 후부터 현재까지 제호, 발행일, 발행주기, 크기 등이 다양하게 변화 발전된 방사협보가 발행되고 있다.

발행한 지 46년이 지난 대한방사선사협회 기관지인 방사협보는 사전적 의미로 협회에 관한 일을 그 회원에게 알리는 보고 또는 그런 간행물인 것이다. 협회의 역사가 쌓이고 기록되는 중요한 회보임을 감안하면 선배 회원들이 지적했던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책과 실행방안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1978년 창간호 발행 때 협회 회원 수는 1,150여 명이었으나 2024년 11월 현재 협회 회원 수는 5만 5천 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최근 5년 간 발행 호당 부수는 평균 3,500부이다. ㉑



⑨ 제360호~2015년 4월 계간지 ⑩ 제367호 ISRRT2016특별판 ⑪ 제370호~2017.여를 계간지 ⑫ 제388호~2022년 첫번째이자기 격월간지 ⑬ 제394호~방사협보2023 vol.394 계간지 ⑭ 제400호 계간지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The 59th Congress of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 International Conference

원로회원과 함께하는 역사 속 이야기

November 16 (Sat.), 2024 | The-K Hotel Seoul



Review

원로회원 간담회 이모저모

원로회원과 함께하는 역사 속 이야기

양남희, 정영기, 박봉림, 강선봉, 조연평, 정순규, 이만재, 이수호, 유명선, 라성규, 김영태, 박종삼 원로회원

참석자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11월 16일 서울 The-K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현장에서 특별 간담회 '원로회원과 함께하는 역사 속 이야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협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원로회원들의 공로를 기념하고, 운영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회 유명선·정순규 원로회원, 부산광역시회 양남희·이만재 원로회원, 대구광역시회 박종삼 원로회원, 인

천광역시회 김영태 원로회원, 광주광역시회 정영기 원로회원, 경기도회 이수호·라성규 원로회원, 강원특별자치도회 박봉림 원로회원, 전라남도회 조연평 원로회원, 제주특별자치도회 강선봉 원로회원 총 12명의 원로회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한정환 회장은 개회사에서 "멀리서도 함께 해주신 원로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과거와 현재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번 원로회

원 간담회를 통해서 협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원로회원들의 소중한 조언을 바탕으로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참석한 원로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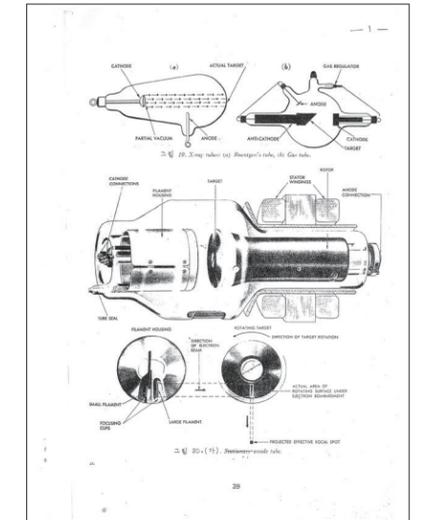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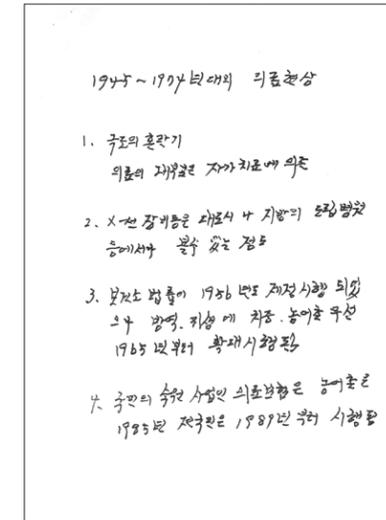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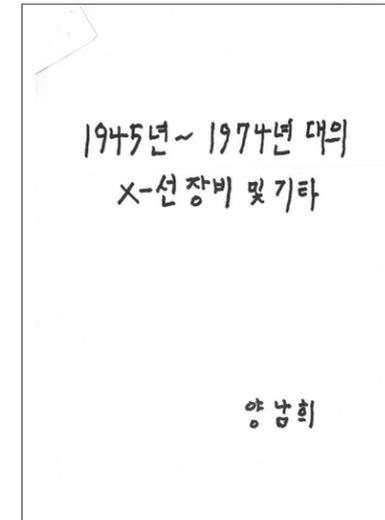
간담회는 전북대학교병원 소속 김은성 위원의 사회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전에 마련된 18개의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된 이 간담회에서 원로회원들은 성실히 준비한 답변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소중한 운영 철학을 공유했다.

이들은 ▲방사선기술학회의 구성 목적 ▲협회 창립 배경과 목표 ▲초기 학술활동 및 보수교육 제도 운영 현황 등 협회의 역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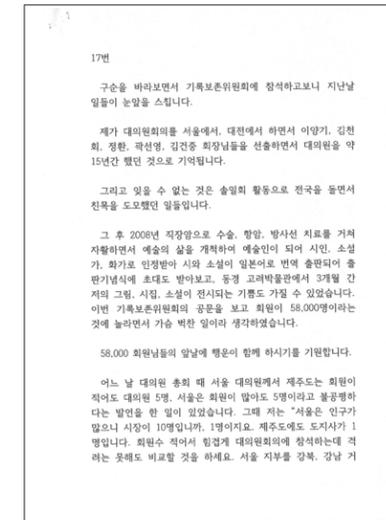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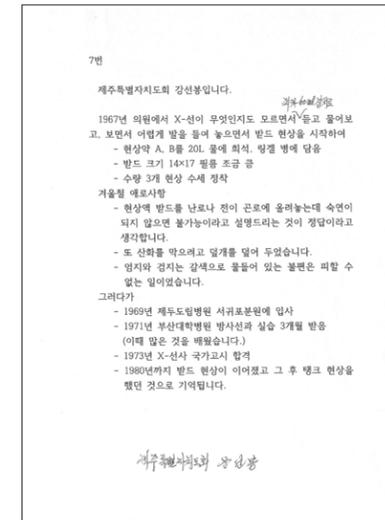
주요 활동에 대해 설명하며, 후배들에게 귀중한 조언을 남겼다. 특히, 양남희, 강선봉, 유명선 원로회원은 직접 작성한 자료를 협회에 전달하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더했다. 또한, 원로회원들은 협회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도전과제를 함께 고민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협회가 준비한 감사 선물을 전달하는 순서가 마려돼, 원로회원들의 공로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날 간담회 자료는 60년사 책자 자료에 활용될 예정이며, 협회는 앞으로 원로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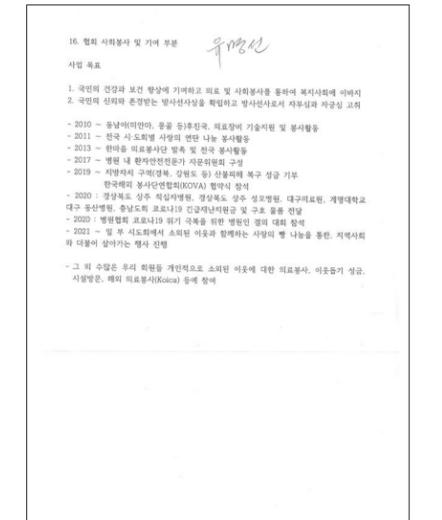
양남희 원로회원의 인터뷰 답변 자료



강선봉 원로회원의 인터뷰 답변 자료



유명선 원로회원의 인터뷰 답변 자료





곽선영 회장
(13~14대, 1990.01.~1993.12.)



김건중 회장
(15~16대, 1994.01.~1998.12.)



이정규 회장
(17~18대, 1999.01.~2004.12.)



조남수 회장
(19~20대, 2005.01.~2011.02.)



이준일 회장
(21대, 2011.03.~2014.02.)



이용문 회장
(22대, 2014.03.~2017.02.)



우완희 회장
(23대, 2017.03.~2020.02.)



조영기 회장
(24대, 2020.03 ~ 2023.02.)



이유식 위원장
(기록보존위원회)

참석자

Review

전임회장 인터뷰 이모저모

60년의 역사를 함께 걸어온 역대 리더들의 지혜를 듣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11월 16일(토), '제59차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역대 회장들을 초청하여 협회의 발전을 이끈 업적을 기념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는 '전임회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협회의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인터뷰는 협회 기록보존위원회 이유식 위원장이 진행했으며, 1:1 대담 형식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전임회장들은 재임 시절의 주요 성과와 협회 운영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며,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인터뷰는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으로 구성되어 각 회장의 고유한 경험과 관점을 담아냈다. 회장들이 남긴 소중한 답변들은 협회의 역사 기록인 『대한방사선사협회 60년사』에 반영될 예정으로, 후대의 방사선사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과거가 있기에 지금이 있다'는 격언처럼, 협회의 뿌리를 되새기며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는 대한방사선사협회의 행보가 기대된다.



영국의 응급영상의학과 레드닷 시스템 (Red Dot System)

Red Dot System은 응급의료 환경에서 방사선사가 영상자료에 해부학적 이상 상황을 표기하는 보고 시스템으로서 방사선사가 영상 검사 시행과 더불어 진단의 단서를 제공해 일차적인 오류 감소에 도움을 준다.

글 김상진(서울대학교병원)

1. 서론

필자가 해외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유럽학회에 참석하여 영국 출신 동료 방사선사 선생님에게서 처음 들은 내용 중에 한국 의료기관에는 없는 영국 의료기관 내 응급실 영상의학과에서 시행 중인 시스템이 있었다. 그것은 1980년대 초에 영국의 Berman 등이 처음 제안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절차인 레드닷 시스템(Red Dot System)이라 불리는 방사선사의 업무 시스템 중에 한가지이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스템이며, 전 세계적으로

영국을 시작으로 몇 개 국가에서 방사선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레드닷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방사선사 이상 감지 시스템(RADS: Radiographer Abnormality Detection Schemes)의 한 유형인 레드닷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영상의학과의 의사의 정식 판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응급실 의료진에게 응급 영상검사를 시행한 방사선사가 직접 급성 또는 만성 병리 또는 잠재적 골절의 존재 등 영상에서 나타나는 영상

해부학적 이상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 보고 시스템이다(사진. 1, 2). 이 시스템은 1981년 영국 런던의 이링병원(Ealing hospital)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스윅파크병원(Northwick park hospital)에서도 시행되었다. 이 시스템의 결과는 1985년에 보고되었다. 이 시스템이 초창기에 시행되었을 당시에는 영국의 의료기관 내 응급실에 상주하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많지 않은 관계로 신속한 정식판독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응급실 내 의료환경에서 시작하게 된 추가적인 절차가 방사선사 본인이 검사한 영상에 빨간색 원형 스티커(레드닷)를 부착하여 영상 검사를 의뢰한 의사에게 영상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이 시스템은 일반촬영 검사자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병변에 대해서 일반촬영 필름에 빨간색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고함으로써 응급실 의료진에 의해 진단 발견을 놓치거나 진단의 오류를 줄이려는 시도로 개발되었다고 한다. 추후 디지털 일반촬영 영상이 등장한 후에도 많은 부서에서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보고의 표시로 “레드닷”이라는 단어를 여전히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방사선사는 응급실에서 영상 검사 시행과 더불어 진단의 단서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병원 응급의료 환경 내에서 응급실 영상의학팀(일반촬영실)과 의뢰부서(주로 응급의학과) 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빨간색 점이 있는 이미지는 의뢰과의 더 많은 심도있는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할 수 있

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응급실의 전반적인 일차적인 오류가 감소하였다고 기존 발표된 논문에서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방사선사 이상 감지 시스템은 방사선사가 어떤 잠재적 병변이상을 표시하는지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아 상당한 모호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영국에서 방사선사 이상 감지 시스템은 방사선사 코멘트(방사선사는 응급 의료 환경에서 발견된 이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을 기록하는 과정을 통합하도록 절차가 발전하였다(사진. 3). 일반적으로 남긴 코멘트는 공식적인 진단보고서로 간주되지 않으며, 잠재적 이상을 의미하는 짧은 메모로 간주되었다.

방사선사의 이상 감지 시스템의 한 유형으로서 레드닷 시스템 참여와 방사선사 코멘트를 통한 신속 보고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이상 감지 외에도 방사선사 코멘트의 성공적인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방사선사가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영상 예비 판독 교육은 응급 상황에서 이상 감지 및 코멘트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방사선사의 판독 능력을 준비하는 데 가치가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영국에서 시작하여 일부 유럽 국가,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시행 중으로 이와 관련한 여러 논문에서는 이 시스템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후향적 분석이 보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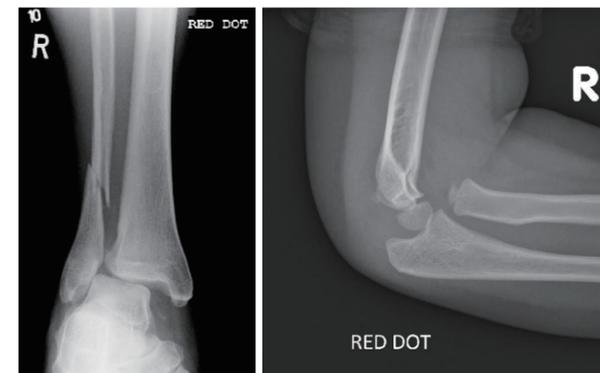


사진.1

사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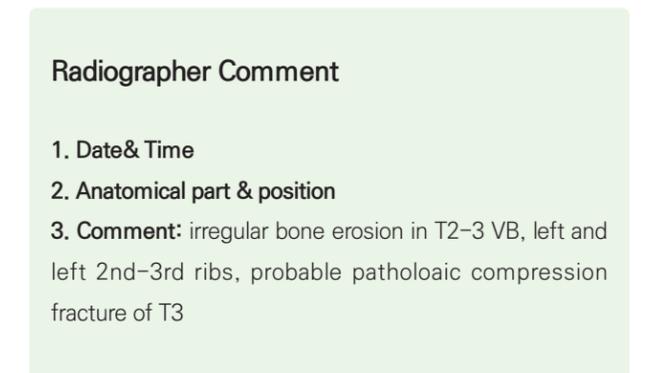


사진.3

2. 전문교육 과정과 교육기관

방사선사는 본인이 검사한 영상을 레드닷 시스템을 적용해서 예비 판독을 보고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단기간 혹은 장기간 레드닷 시스템 강의코스를 이수해야 한다. 방법은 2가지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대학원에 입학하여 대학원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Imaging interpretation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 있으며, 또 다른 방법은 공식적인 영상판독 외부교육기관에서 집중교육 코스(단기간: 6시간, 장기간: 2~3개월 코스)를 대상으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강의를 수료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외부교육기관으로는 RED DOT RADIOLOGY COURSES(<https://www.radiology-courses.com>), PRACTITIONER DEVELOPMENT UK(<https://pduk.net>), RED DOT TRAINING FOR RADIOGRAPHERS(<https://www.radicon.org/courses/Red-Dot-Training-Radiographers-Technologists>), EMERGENCY RADIOLOGY COURSE(<https://www.bromleyemergency.com/our-courses/emergency-radiology-course>) 등의 교육기관들이 있다. 이 기관들은 다양한 분야의 의료 전문가를 위한 지속적인 전문 분야 개발 과정의 임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식적인 전문교육 업체 이면서 영국 내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과정까지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서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보건

의료 직종 전문교육 콘텐츠를 대상으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한 외부교육기관들이다. 특히 방사선사를 위한 흉부 영상 진단과 근골격계 진단 관련한 강의가 있다. 근골격계 진단 강의의 구성은 상지 일반촬영 영상 판독(예: 어깨, 팔꿈치, 손목, 손을 포함한 상지의 영상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교육), 하지 일반촬영 영상 판독(예: 골반, 고관절, 무릎, 발목, 발을 포함한 하지의 영상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교육)과 체계적인 일반촬영 영상 평가를 위한 ABC(Alignment-정렬, Bone-뼈, Cartilage-연골) 원칙을 숙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증례별로 일반촬영 영상 해석 퀴즈도 제공되고 있다. 이 과정은 환자 평가, 영상 검사 의뢰 및 판독하는 방법 등의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흉부영상과 근골격계 영상의 이해를 향상하고자 하는 의료 종사자에게는 이상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방사선사에게 경미한 근골격계 영상부터 심각한 외상 영상까지 진단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이해를 제공하고, 패턴 인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한 골절 및 탈구 식별 능력 향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사소한 부상에 대한 근골격 영상 평가, 참조 및 예비 판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임상에서 수월하게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표. 예비진단 사례에 대한 교육 내용

범주	유형
골절	변위 및 비변위; 분쇄; 병리적; 관절 내; 과상; Monteggia; Colles; 치유; GreenStick; Barton's; Salter-Harris 유형; 탈구; 다발성 골절; 골반 골절; 고관절; 의심되는 비우발적 부상; 경골 고원; 압박된 팔꿈치; Lisfranc 골절-탈구; 스트레스; 제5중족골 기저부; 은폐
탈구/반탈구	전방 및 후방; 월상골; 월상골 주위; 주상골-월상골 분리; 음모결합부 분리
연조직 징후	관절 삼출액; 지방혈관절증; 지방 패드 상승; 수술적 폐기종
정상변형을 포함한 정상	골단; 이분형/다분형 슬개골; 삼각골; 골화 중심
일반적인 병리학	다리-칼베-페르테 질환; 대퇴골 상부 골단부 미끄러짐

미묘한 병리를 감지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학원 과정이나 외부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방사선사의 전반적인 보고 정확도는 실무 영상의학과 의사의 정확도와 비슷하다.

3. 영상에 대한 예비진단범위

예비진단의 주요 질환으로는 뼈 골절, 관절 탈구 혹은 불완전 탈구, 이물질, 폐기물, 흉막 삼출액 등 응급실 일반촬영검사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근골격계 및 흉부 관련 질환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4. 문헌검색을 통한 레드닷 시스템의 효율성 평가

이 시스템을 시행한 후 효과적인 측면에서의 기존 논문을 검색해 보면 1980년대 영국에서 레드닷 시스템이 시행된 이후 영국에서는 레드닷 시스템이 널리 채택되었으며,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응급실의 92%가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사 이상 감지 시스템(RADS: Radiographer Abnormality Detection Schemes)의 한 유형인 레드닷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같은 저자가 수행한 2011년 연구에서는 이 통계가 88.6%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RADS를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은 진단 과정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외상 환자의 응급 일반촬영 영상을 판독하는데 있어서 응급의학과 의료진에게 신속하게 보고됨으로써 응급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변위 되지 않은 골절을 감지하는 레드닷 시스템의 정확도는 상당히 낮아서 민감도는 45.9%로 보고 되기도 하였다. 이는 레드닷 시스템이 특정 이상을 감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더 미묘한 병리를 감지하는 데는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레드닷 시스템은 널리 채택되었으며, 외상 환자의 방사선 영상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응급의학과 의료진에게 신속 보고됨으로써 응급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되고 있다.

영국 병원의 약 81%가 이 시스템을 프로토콜에 통합했다

(Price & Le Masurier, 2007). 또한 영국 연구에 따르면 레드닷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면 응급실 환자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홀, 이진, 클리먼, 1999). 영국 연구에 따르면 방사선사의 전반적인 보고 정확도는 실무 영상의학과 의사의 보고 정확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Brealey, Scally 등, 2005). 추가 연구에 따르면 대학원에 입학하여 대학원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Imaging interpretation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혹은 공식적인 영상판독 외부교육기관에서 집중교육 코스를 이수한 방사선사의 전반적인 민감도는 92~97%, 특이도는 92~94%인 것으로 나타났다(파이퍼, 패터슨, & 고드프리, 2005), 또 다른 논문에서는 방사선사가 공식적인 레드닷 시스템 교육을 받았을 때 영상 판독 정확도가 90%에서 93%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 되고 있다(하그리브스 & 맥케이, 2003).

5. 결론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드닷 시스템은 응급 일반촬영 영상을 대상으로 방사선사가 직접 특정 이상을 감지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더 미묘한 병리를 감지하는 데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널리 채택되었으며 응급환자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기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한 방사선사의 예비 판독 신속 전달 시스템의 발전은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고 응급 상황에서 일반촬영 영상에 대한 예비 판독의 정확성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K

방사선 방어시설인 제어실, 제어소에 관한 안내

(2024년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 참고)

제어실의 방어시설

- 방어시설: 촬영실과 구획되어 진단용 방사선 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로서 환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환자보기창이 설치된 곳



제어소의 방어시설

- 방어시설: 촬영실과 일부 개방된 방어벽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진단용 방사선 제어장치가 설치된 곳



- 시설규격: 제어장치가 엑스선 고전압발생장치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장치의 제어소

※ 제어장치와 고전압발생장치가 분리된 장치의 구성품

제어소의 바닥면적: 1.5m² 이상

방어벽과 검사테이블 간의 거리: 2m 이상

장치의 최고 관전압에 따른 방어벽 및 환자보기창의 구조

- ① 최고 관전압이 100 KV를 초과하는 경우

- 방어벽: 1.5mm 연당량 이상
- 환자보기창: 1.5mm 연당량 이상, 환자보기창에 연당량 (예, 100 KV, 연당량 1.5mm 이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 ② 최고 관전압이 100 KV를 이하하는 경우

- 방어벽: 1mm 연당량 이상, 크기: 가로(1m) X 세로(2m) 이상
- 환자보기창: 1mm 연당량 이상

대부분의 의료 기관은 방사선 방어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 병 의원에서는 방사선 구역에 대한 방어시설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 ① 제어실, 제어소 바닥 면적 상향 조정 / ② 환자보기창 납당량 표기 의무화 / ③ 환자보기창의 위치 및 크기를 규정하는 조항 신설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준비 및 논의 중이며 추후 설문조사 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안전관리부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Study _ 60

논문작성시 유용한 프로그램 ChatG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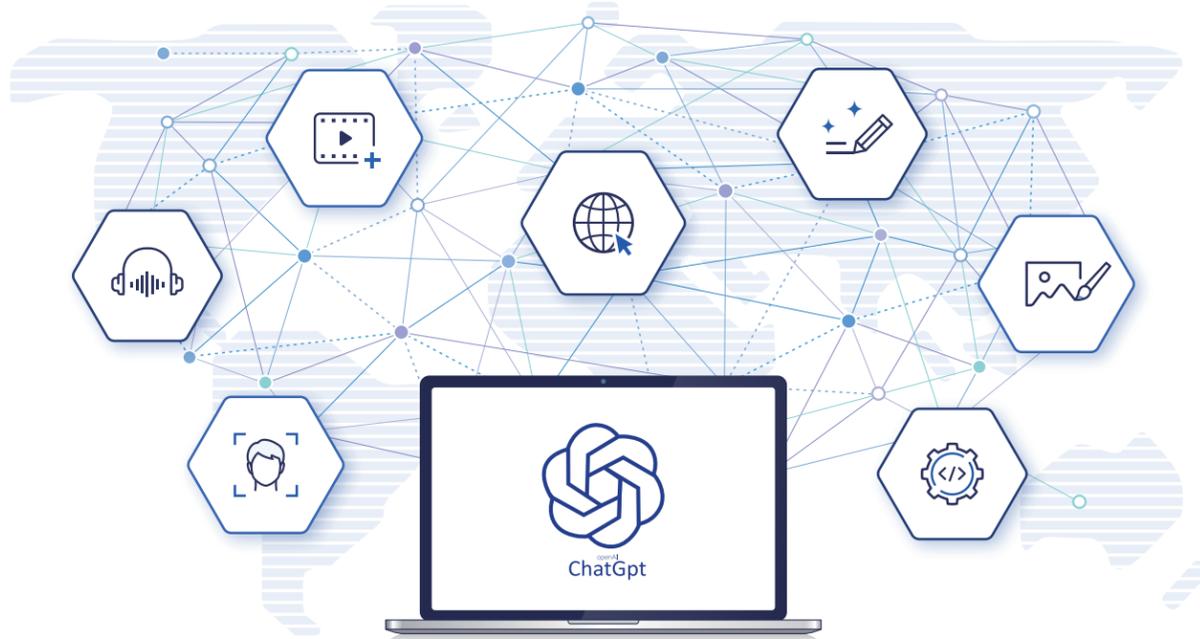
Sketch _ 64

스리랑카 국제교육 심포지엄 행사 참가

Webtoon _ 66

숨 참으세요

WITH KR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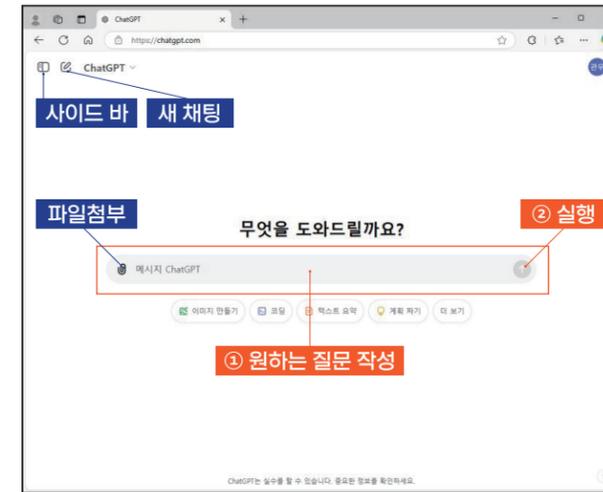
논문작성시 유용한 프로그램 ChatGpt

ChatGPT는 거짓말과 프로판다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물이 매우 정확하게 출력되기에 유용하며, 논문 작성에 들여야 하는 노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 가능하다.

글 최관우(원광보건대학교)

ChatGPT는,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OpenAI에서 2022년 11월에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은 ChatGPT 사이트(<https://chatgpt.com>)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 또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법은 사이트에 접속해 질문이나 요구사항을 텍스트로 작성한 후 실행하면 답변이 생성된다[그림-1].

여기서 입력하는 대화문을 '프롬프트(Prompt)'라 하고, 이에 대한 AI의 답변 생성을 '응답(Response)'이 생성된다고 표현한다. 기능 자체는 이전에 나온 구글검색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차이점은 결과물인데, 전문가가 썼다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보고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시를 짓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한다.



[그림-1]

ChatGPT는 기계가 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대표적 사례로, Open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GPT-3.5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LLM은 단어를 조합해 나오는 문장 가운데 가중치를 자연스러운 문장에 부여하는 통계 모델로, 이러한 LLM을 이용한 ChatGPT는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과 비슷한 문장을 써 내려간다. 여기서 얼마나 인간과 비슷한 문장을 쓰느냐는 인간 뇌의 시냅스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매개변수)의 수에 따라 좌우되는데, 초기 버전인 GPT-3는 파라미터가 1750 억개에 이르렀고, 현재 출시된 GPT-4는 100 조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숫자가 클수록 성능도 뛰어나다. 그러다 보니 ChatGPT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검색 서비스를(키워드를 입력해 유사성이 높은 웹사이트 링크를 차례대로 보여주는 방식) 벗어나 사용자의 질문에 곧바로 정답을 제시한다. 즉, ChatGPT를 사용하면 이제는 원하는 내용을 찾기 위해 검색 서비스가 제시하는 수많은 링크를 일일이 클릭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리함으로 인해 지난 20년 가까이 검색 시장의 왕좌를 차지해 온 구글 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삼성도, 앞으로 형성될 거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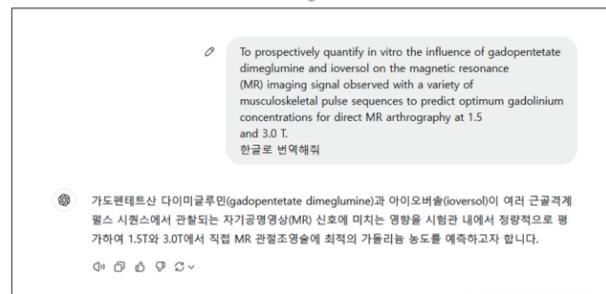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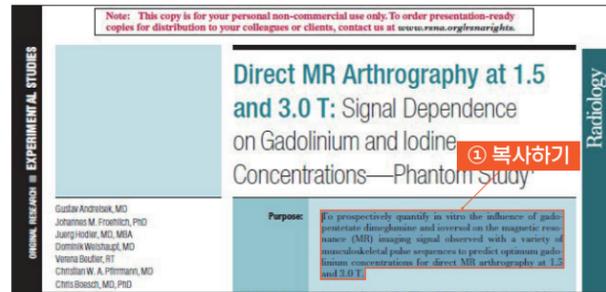
그러나, 완벽한 것 같은 ChatGPT도 문제점은 있다. 바로

ChatGPT가 생성한 글 또는 정보가 거짓일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문제점은 ChatGPT 만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AI의 문제점이다. 이와 같이 생성된 AI의 응답이 거짓일수 있는 이유는, AI는 응답을 생성할 때 웹사이트와 뉴스, 블로그 게시물 등의 온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 정보들 가운데 잘못된 내용이 섞여 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학습한 AI의 응답도 거짓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두고 AP(미국연합통신)는 "AI 도구는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과 프로판다를 하려는 사람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ChatGPT는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결과물도 매우 정확하게 출력되기 때문이다. 이를 응용하면 논문을 계획하고, 분석하고, 작성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필자가 ChatGPT를 사용할수록 드는 생각은 십여 년 동안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던 상당부분을 앞으로는 ChatGPT가 대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었다. 그만큼 ChatGPT는 전문가의 관점에서도 매우 유용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호를 시작으로 ChatGPT를 이용하면 어떠한 점이 논문 작성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고자 한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주제를 선정하면 가장 먼저 해야 일은 그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검색하고 분석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충분한 문헌고찰을 통해 기존 연구들의 경계를 파악하다 보면 독창성 있는 연구 주제가 도출되며 핵심 연구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련문헌의 검색은 의학 및 보건학 분야라면 지난해에 게재된 PubMed 이용하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확보한 관련문헌을 읽어보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쓸만한 문헌은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 보니 한글로 작성된 문헌보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럴 때 ChatGPT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PubMed나 구글 학술검색을 통해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았다고 가정해



[그림-2]

보자. 참고로, 본 내용에 예제로 사용된 문헌은 MR Arthrography와 관련된 Direct MR Arthrography at 1.5 and 3.0T라는 Radiology에 게재된 문헌인데, 꼭 저 문헌을 다운로드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이 연구에 참고했던 다른 문헌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다운로드 받은 문헌을 내 연구에 이용하려면 우선 문헌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문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접 읽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 읽어보는 것은 연구자의 외국어 능력에 따라 편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내용을 부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다. 또한 중요 문헌이 영어가 아닌 비영어권 언어라면 그 또한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때 ChatGPT를 활용하면 언어종류에 제약 없이 빠르고 비교적 정확하게 문헌의 내용을 파



[그림-3]

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ChatGPT를 활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내가 원하는 부분을 ① 문헌에서 복사(Ctrl+C)한 다음 ChatGPT 사이트에 접속하여 ② 메시지 창에 붙여 넣은 (Ctrl+V) 후 ③ “한글로 번역해줘”라고 입력하고 ④ 실행 버튼을 누르면(Enter) 영문으로 작성된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서 응답을 생성(출력)한다[그림-2]. 그러나 위와 같이 문헌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특정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영어실력으로 문헌 전체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야 하거나 아니면 번역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문헌 전체를 번



[그림-4]

역하고 내용을 파악해야 특정 부분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봐야 할 문헌이 한, 두편이라면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이 여러 편이라면 위 방법은 연구자의 상당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pdf 파일 자체를 업로드하는 방법이다. 즉, 분석하고자 하는 ① 문헌의 pdf 파일을 ChatGPT 사이트에 접속하여 끌어 놓은(Drag and drop) 후 ② 파일이 업로드 된 메시지 창에 “파일을 열어 요약해줘(or 분석해줘)” 라고 입력하고 ③ 실행 버튼을 누르면(Enter) 문헌 전체를 요약해서 응답을 생성(출력)한다[그림-3].

추가적으로, 마우스를 이용한 끌어 놓기 외에 또 다른 파일 업로드 방법은 메시지 창의 파일첨부 버튼(클립 모양)을 클릭하여 나타난 열기 창을 통해 업로드 할 수 있다.

파일은 업로드하는 방법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분석해야 할 문헌이 수십에서 수백편이라면 역시 앞의 복사 붙여넣기 방법처럼 연구자의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더불어 문헌분석을 하다 보면 때로는 동일 주제 문헌을 함께 비교해야 될 경우도 발생하는데, 위처럼 하나하나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은 문헌 내용이 요약되더라도 한편씩 요약되기 때문에 여러편을 함께 비교하여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문헌의 pdf 파일을 한꺼번에 업로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동일 주제의 문헌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두개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 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분석방법은 ① 두 문헌의 pdf 파일을 ChatGPT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꺼번에 끌어 놓은 후 ② 두 파일이 업로드 된 메시지 창에 “두 파일을 열어 비교해줘(or 요약해줘, 분석해줘)”라고 입력하고 ③ 실행 버튼을 누르면(Enter) 끝이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두 문헌 전체를 ChatGPT가 비교해서 응답을 생성(출력)한다[그림-4].

참고로 파일 업로드는, 무료버전은 하루에 분석할 수 있는 파일 수가 3개로 제약이 있으며, 유료버전은 하루 제약은 없지만 한번에 분석할 수 있는 파일수가 10개로 제약이 있다. 그러나 10개 이상이라도 유료버전은 zip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하면 용량이 512MB가 넘지 않는 이상 분석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번호에는 ChatGPT에 대한 첫번째 시간으로 논문 작성 시 매우 중요한 참고문헌 분석에 대해 ChatGPT의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지만 위에 제시한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내 연구주제와 관련된 핵심 문헌을 선정하기 위해 수십에서 수백편의 문헌을 사전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K**

스리랑카 국제교육 심포지엄 행사 참가

아시아 펀드의 후원으로 ISRRT 주관 교육 행사가
스리랑카 콜롬보국립병원에서 개최

글 양희민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국제부장]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속 원준재 선생님

2024년 9월 8일, 아시아 펀드의 후원으로 ISRRT 주관 교육 행사가 스리랑카 콜롬보국립병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이진욱 교육 이사과 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원준재 부회장이 강연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통역을 위해 참가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 해당 주제를 연구하는 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김완석 회장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진욱 교육 이사는 “Basics of PACS”라는 주제로 PACS의 기본 개념과 실질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강연하였으며, 원준재 부회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 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The History of X-ray Imaging: Past, Present, and Future’와 ‘The Forefront of Radiation Management in Digital X-ray Imaging’ 두 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대만에서는 ‘Historical Development of Computed Tomography’와 ‘Clinical Applications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라는 주제로 CT와 MRI의 역사적 발전과 임상 응용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리랑카 병원 환경과 앞으로의 교류 필요성

스리랑카 콜롬보 국립병원에 방문했을 때 병원의 환경과 의료 시설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영상 시스템의 경우, 디지털 방사선(DR)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CR 사용률조차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여전히 필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 의료 기술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며, 앞으로도 스리랑카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기술적 지원을 통해 많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지 협회의 따뜻한 환대

이번 행사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스리랑카 방사선사 협회 회장의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행사 전부터 공항 픽업을 사전 준

비해 주었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며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 덕분에 행사를 더욱 원활하게 마칠 수 있었고, 스리랑카 방사선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일본, 대만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과 함께 방사선 기술의 발전 방향과 도전 과제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고,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K

여의도성모병원 소속
이진욱 선생님



스리랑카 협회 회장인 Mr. V.G.Wimalasena(우측 3번째)

숨 참으세요

툰

28. 익숙함

웹툰 형식으로 아래로 길게 읽어주세요.

선생님들은 일반 촬영 검사 받으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방사선 걱정? 피폭 걱정?

* 입사시 건강검진, 해마다 하는 건강검진 등등, 가끔 일반 촬영 검사받습니다.

제가 방사선 검사를 받을 때요?



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있죠, 건강검진을 해마다 받으니까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완전 환자가 많구나
완전 환자...
완전 환자...

* 그 외 이 선생님은 이렇게 촬영 하시거나 와, 폐 촬영시 올라가는 턱이 아프다 등이 있습니다.

김철수 교수님은 이 검사를 주로 내서



오 그렇군요

* 전문의 의사 선생님을 우리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소소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이나 발 같은 촬영은 가끔 양쪽을 비교하기 위해 같이 촬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분과 이상이 있는 부분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손을 같이 놓고 촬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반드시 양쪽을 촬영하는 건 아니며, 아픈 한쪽만 촬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BOTH HAND PA

* BOTH HAND PA란 양 손 정면 촬영이라는 촬영명으로 두 손을 같이 촬영을 합니다.

난 왼손이 아픈데 왜 오른쪽도 찍냐고요

아 그건... 주치의 분께서 비교하고 시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고요 왜 비교하냐고요



... 환자분 주치의 분에게 여쭙어주세요. 저희는 '오더'를 받으면 촬영만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제발 왼쪽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환자분을 보내주세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본인이 어떤 검사를 받으시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시고 오시다 보니,

저희에게 콤플레인 거시는 경우가 많은 검사기도 합니다.

방사선이란게 위험하고 무섭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

아니 왜 이쪽은 멀쩡한데 찍는 겁니까?



빛의 속도로 양 손을 촬영 테이블에서 때십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촬영 후 진료하러 가지지만,

간혹 화를 내시며 촬영을 중단, 주치의분에게 가셨다가 다시 촬영하러 오시기도 합니다.

위에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촬영을 내려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클랑 오진 않겠조...

환자분들이 알지 못하셔서 오해하며 걱정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가끔 안타깝습니다.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무를 하지 조금 지나다 보면 손 촬영과 같은 검사 본연의 특징 외에, 병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들 각자 선호하는 촬영도 어렵듯이 알게 되곤 합니다.

그 앞의 경지에 오르신 같은 근무처 방사선사 선생님.

퇴근 바로 전이라 환자분을 없지?



네 없어요 선생님 근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진료 좀 받고 왔어 촬영 좀 해줄래?

아 넵!!~ 폐 센터 김철수 교수 검사지?

접수증에는 주치의 성함, 검사 받는 센터(과)가 등 여러가지 정보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찍어

완벽한 자동화 방사선 촬영 신금 리벨 환자

숨 쉬시구요 선생님!

사진 잘 나왔어?



와.. 완벽합니다 선생님 옆 사진도 있지?

넵!!

선생님! Lat 있오...



* LT LAT은 폐 옆 모습 사진으로, 옆으로 서서 왼쪽 옆 면을 촬영판에 붙여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말하기 전에 검사자의 손 필요 없이, 이미 끝난 자세 교체



숨을 깊게 들이 마시고

숨을 참는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사진 또한 믿을 수 없이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난 진료 받으러 간다 사진 빨리 정리해서 전송해!

퇴근들 잘하고

네

* 현대 병원에서는 필름 대신 디지털 기술 '팩스' 라는 시스템을 사용, 빠르게 촬영한 사진을 병원 전체에 전송합니다

과감히 런닝만 입으신 상태로 빠르게 퇴장 하시던 선생님의 빠른 마무리

제 인생 최고의 환자였습니다.



근처에 계셨던 모든 선생님들이 촬영을 구경하실 정도로 끝내주는 환자였습니다.

'숨 참으세요' 는 네이버 도전만화와 애니원툰에서 연재되었던 웹툰입니다. 네이버 http://comic.naver.com/challenge/ist.nhn?titleId=690698 애니원툰 http://anyonetoon.com/AocWebtoon.aoc?webtoon_num=57&

닥터뉴스 김영학 대표의 빈 그릇에 내 마음 담고



닥터뉴스 김영학 대표가
“그만두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후
12년만에 매주 수요일 독자들에게 보냈던
CEO 리포트의 글 70편을 모아서
『빈 그릇에 내 마음 담고』라는
새 책을 최근 펴냈다.
- 2024.9.4.

신국판 | 210쪽 | 16,000원 | Samjin Printech

김영학 대표는 이 책에서 그동안 자신의 삶의 철학이자 목표를 “겸손과 감사, 기쁨”으로 삼고, 여기에 사랑과 정성을 담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마음을 『빈 그릇에 내 마음 담고』 한 권의 책에 실었다.

눈물로 뚝 떨어진 동백꽃이 붉다

“동백꽃에 그리움은 삶이다. 동백꽃에 그리움은 희망이요, 사랑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참을 줄 안다. 참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감싸는 것이다.
남을 감싸기 위해서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어야 한다.

겨울이 아름다운 것은 훗날 바람과 매서운 추위 때문이 아니다. 하얀 눈 속에 향기를 뿜어내며 피는 매화와 독야청청(獨也靑靑), 절벽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소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눈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지만 겨울바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중략)“

『빈 그릇에 내 마음 담고』는 △제1장 팔만대장경 속에는 부처가 없다 △제2장 애플, 사과 한 입 베어 물면 △제3장 인생의 정답은 오답이 정답이다 △제4장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돌리고 누워 있다면? △제 5장 인생길을 이끌어 가는 개 세 마리 △제6장 공주의 남자는 못난 첫째 딸을 선택했다 △제7장 인생 CEO, 너의수고로움이 너를 편안케 하리라 등 모두 70편의 글이 각 장마다 10 편씩 빼곡히 담겨 있다.

닥터뉴스 김영학 대표는 20년 동안 매주 수요일 CEO리포트 라는 글로 병원장과 기업 CEO들에게 사랑과 감동의 글을 전해 독자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아온 대표적인 의학 칼럼리스트, 의학 대기자로 닥터뉴스 대표와 엔디저널에서 지금도 언론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책 구입 문의 010 -4176-5571 김영학, kyh6384@hanmail.net

퀴즈 이벤트

방사협보 제400호를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 이벤트 QR코드로 접속하여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12월 23일 ~ 2월 28일



- 1등 골드바 반돈 (2명)
- 2등 신세계 10,000원 상품권 (20명)
- 3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명)

※ 퀴즈 이벤트는 방사선사만 참여 가능합니다.
※ 당첨 상품은 개별 발송하며, 3월 17일(월)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uiz 1**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방사선사 이상 감지 시스템의 유형으로, ()의 주요 기능은 영상의학과 의사의 정식 판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응급실 의료진에게 응급 영상 검사를 시행한 방사선사가 직접 급성 또는 만성 병리 또는 잠재적 골절의 존재 등 영상에서 나타나는 영상 해부학적 이상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 보고 시스템이다. (News Review 참고)
- Quiz 2** 개인 병원 혹은 의원에서 방사선 구역에 대한 방어시설의 의무화에 대한 내용으로 환자보기창 () 표기 의무화가 필요하다. (공지사항 참고)
- Quiz 3** 『빈 그릇에 내 마음 담고』의 저자 성함은? (광고 참고)

방사협보 제399호 퀴즈 이벤트 1등 당첨 후기

안녕하세요. 광주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문입니다. 매달 방사협보를 받으면 항상 동료들과 퀴즈 풀며 응모하면서 과연 될까 싶었는데 이렇게 당첨되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요즘 의정갈등으로 인해 업무량도 많아지고 힘들었는데 이런 이벤트를 통해 웃음지을 수 있게 되네요. 저희 방사선사들의 사회적 직업적 가치도 상품으로 받은 것처럼 차츰차츰 가치가 더 올라가 지금보다 더욱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며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환자들의 검사를 위해 땀 흘리며 일하는 방사선사분들에게도 항상 힘내시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제 삶에서 잊지 못할 추억 하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오*문 회원



안녕하세요.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 중인 방사선사 정*중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검사 중에 발신자 협회로 된 전화가 와서 의아하던 찰나에 퀴즈 이벤트 1등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네요. 공직방사선사로 근무하며, 다른 회원분들 소식과 정보 등을 협회로 틈틈이 보고 있었는데, 이런 행운까지 받게 되어 감사말씀드립니다. 상품으로 주신 금 반 돈은 가족들과 함께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_정*중 회원



Gyeongbuk, a place I want to be with!
Andong, where I want to stay!



2025 GBRTA

대한방사선사협회 춘계(국제) 학술대회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학문으로 하나 되는 방사선사! 학술교류의 중심 GBRTA

주최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주관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 후원 안동시